쾌적한 환경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산소 같은 병원

안산산재병원 (구 안산중앙병원)

안산산재병원은 1년 4개월에 걸친 리모델링 후 2013년 11월 새로운 병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동안 200여 억 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새롭게 단장된 안산산재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장비를 갖추고 서부공업단지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보건진료사업과 지역주민의
의료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료부터 재활까지 원스톱 1:1 맞춤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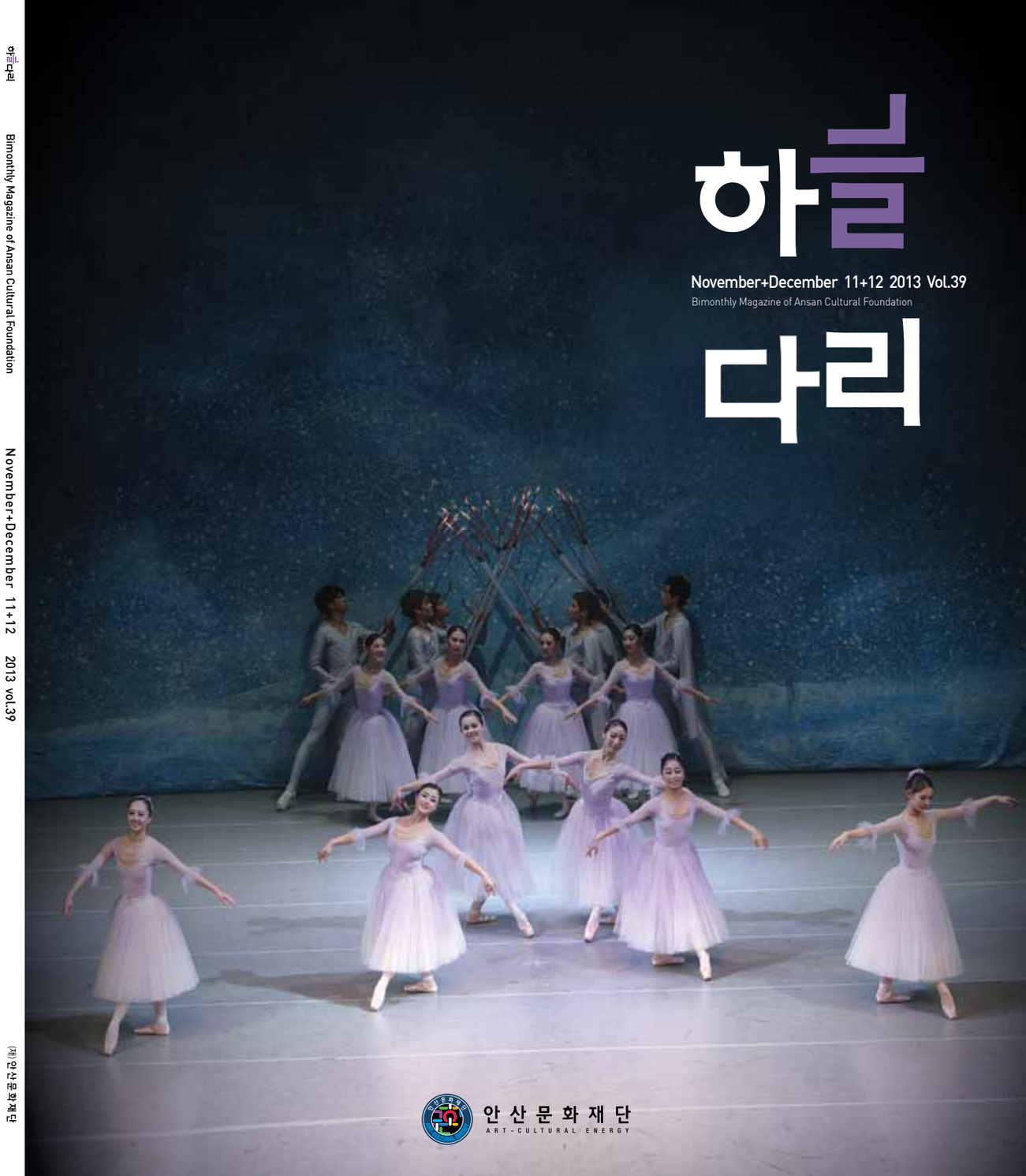
건강검진센터 031-5001-182,4
재 활 센 터 031-5501-220
응 급 실 031-5001-119(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기)
대 표 031-5001-114 ※토요일은 오전진료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종합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

하늘다리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November+December 11+12 2013 vol.39 (재)안산문화재단

하늘다리

November+December 11+12 2013 Vol.39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안 산 문 화 재 단
ART-CULTURAL ENERGY

하늘다리

안 산 문 화 재 단　감 성 문 화 지

An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2013. 11+12 vol.39

2013 11 · 12월호(통권 제39호) · 비매품

발행인 김철민
편집인 김인숙
발행처 (재)안산문화재단(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전　화 080.481.4000
팩　스 031.481.4021
기　획 기획홍보부
편집 및 디자인 (주)이안커뮤니케이션(02.850.3160~79)
출력 및 인쇄 명일인쇄

www.ansanart.com

「하늘다리」는 무지개를 뜻하는 말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하는 안산문화재단의 의지입니다.

Cover Story

2014년에 열릴 안산문화재단의 야심찬 기획 〈몸짓페스티벌〉이 11월 늦가을에 프리뷰 형식으로 펼쳐진다. 마임, 무용, 움직임 등 몸이 할 수 있는 모든 동작들을 통해 관객과 호흡을 맞추게 될 것이다. 사진은 ASAC 몸짓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백영태 발레류브브.

Contents

ASAC Essay

04 안산문화재단의 CI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06 포토에세이
08 11~12월 공연 캘린더

ASAC Special

12 **Message** 안산시립국악단 임상규 상임지휘자
16 **People** 팝피아니스트 윤한

ASAC Stage

22 윤한 콘서트 in Ansan 〈Man on Piano〉
24 ASAC 몸짓페스티벌 예고편
26 ASAC 몸짓페스티벌 축하공연 〈태권무무 달하〉
28 음악놀이극 〈두부와 콩나물〉
30 아침음악살롱5 〈이다도시의 수다 콘서트〉
32 주미강&손열음 리사이틀 〈Fantasy for Two〉
34 모차르트 웹 게임 음악회
36 체코 보니푸에리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콘서트

ASAC Culture Trend

40 테마가 있는 미술 ⑪
46 테마가 있는 공연 ⑤
52 테마가 있는 음악

ASAC 문화사업

60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62 도시락 파티
64 문화 현장 – '안녕?!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김정선
68 시민극단 – 'PLAY 날마다 잔치'

ASAC News

72 공연 현장 – 음악극 〈에릭 사티〉의 연출가 박혜선

76 칼럼 – 음악치료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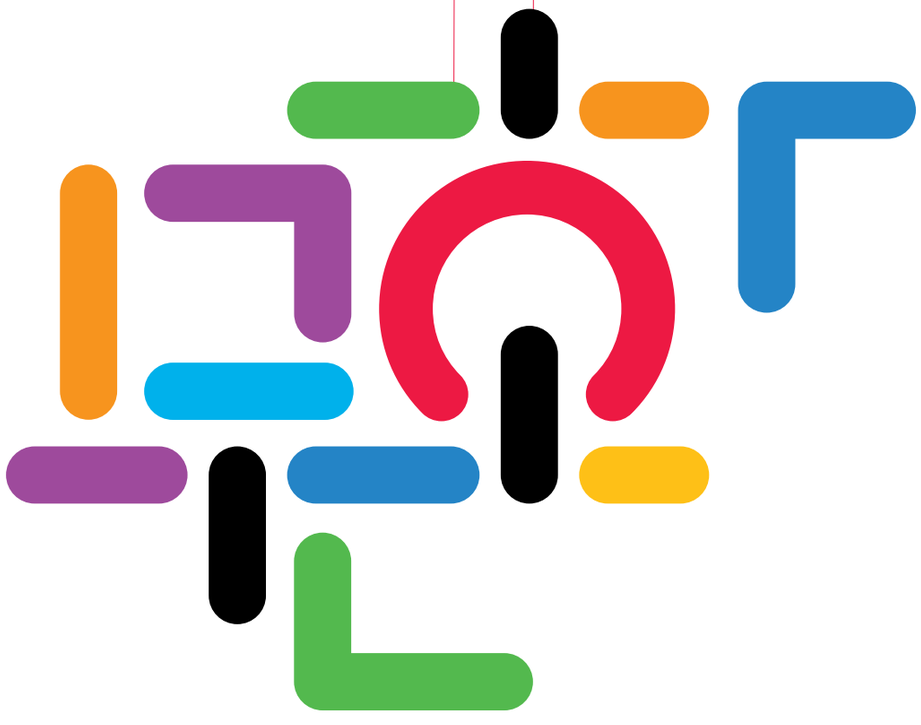
안산문화재단의 CI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Design Concept 1.
'한글의 아름다움'을 살린 디자인

심볼마크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한글 로고로 작업하였으며, 친숙함과 넘녀노소 누구나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단순한 선과 가시성이 돋보이는 색상을 사용해 디자인하였습니다.

Design Concept 2.
'문화 · 예술의 다양성'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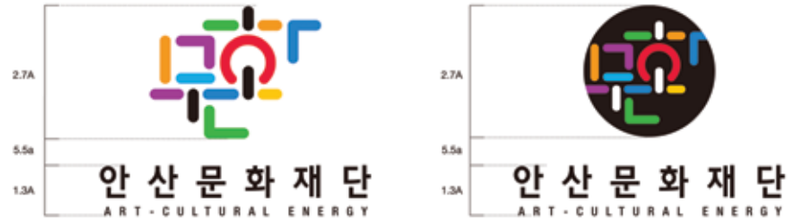
마크에 사용된 선은 안산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공연, 전시, 아카데미 교육 등의 문화예술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려한 색상은 '예술이란 세상의 다양함'이라는 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개관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매년 40건 이상의 공연을 기획하고 120여 개의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 1천여 명 이상의 수강생을 배출하는 등 문화, 예술교육 부분의 사업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안산을 문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예술진흥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문화예술 창조의 거점 공간으로서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2013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새로운 CI를 선보입니다.
새로운 CI는 예술 · 문화의 중심이 되기 위한 안산문화재단의 비전을 시각화한 디자인으로 누구에게나 친숙하게 다가가는 문화재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CI와 함께 앞으로 안산문화재단은 예술교육과 창작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며 다양한 문화욕구를 수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01
국 · 영문 상하 조합



02
국 · 영문 좌우 조합

03
앰블럼

만추의 산자락은
슬프고도 아름답다.
나무와 나무 사이로 넘나드는 햇살과
산허리를 휘감아 돌며 토해내는 갈바람
가을의 수런거림은 일탈을 꿈꾸게 한다.
가을 산이 토해내는 달콤 씁쓸한 맛,
그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들을 향한 그리움이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 달력

Ansan Artcenter

11 NOVEMBER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정 제9회 정기연주회 19:30
3	4	5 기 ASAC몸짓페스티벌 〈이色몸짓〉 19:30	6	7	8	9 기 ASAC몸짓페스티벌 〈몸짓콘서트〉 16:00 기 음악놀이극 〈두부와 콩나물〉 11:00, 15:00
10 기 음악놀이극 〈두부와 콩나물〉 11:00, 15:00	11	12 기 아마추어 극단	13 기 아마추어 극단 기 담배가게 아가씨 10:00, 15:00, 19:30	14 기 아마추어 극단 기 담배가게 아가씨 10:00, 15:00, 19:31	15 기 ASAC몸짓페스티벌 〈태권무무 달하〉 19:30 기 아마추어 극단	16 기 아마추어 극단 기 도시락 파티 20:00
17 기 아마추어 극단	18	19	20	21	22	23 기 윤한 콘서트 〈Man on Piano〉 17:00
24	25	26 기 클래식 동물 사육제 10:20, 11:30	27	28 기 아침음악살롱5 〈이다도시의 수다 콘서트〉 11:00	29 기 클래식 동물 사육제 10:20, 11:30	30

기 기획공연 정 정기대관

Calendar

www.ansanart.com

12 DECEMBER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정 정기연주회 19:30	4	5	6	7
8	9	10	11	12	13	14 정 장윤정 콘서트 15:00, 18:30 기 주미강&손열음 리사이틀 〈Fantasy for Two〉 17:00
15	16 기 안녕?!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	18 기 모차르트 웹 게임 음악회 10:30	19	20	21
22	23	24 기 체코 보니푸에리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콘서트 19:30	25	26	27 기 송년음악회 19:30	28
29	30	31				

※ 공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80-481-4000**

12 Message : 안산시립국악단 임상규 상임지휘자
16 People : 팝아티스트 윤한

Main theme

ASAC Special

국악은 변해야 한다!

안산시립국악단 임상규 상임지휘자

국악단 하면 누구나 쉽게 갖게 되는 선입견 중 하나가 고루함이다.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지루함은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언사다. 국악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전통 위에 현대를 껴안은 국악, 그런 국악을 지향하는 안산시립국악단은 공연기획이나 무대, 연주, 협연 연주자 구성부터 조금 색다르다. 예상을 뒤엎는 기발함과 연주자 구성의 다변화 등으로 공연이 올려질 때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 힘은 남다른 실험정신이 있기에 가능했다. 라틴음악을 국악기로 연주하는가 하면, 일부 서양 악기들을 국악단과 함께 공연하기도 하는 등 부단한 실험정신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안산 시민들은 물론 국악 애호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실험과 창의적 연주 형태는 안산시립국악단을 이끌고 있는 임상규 상임지휘자가 지휘를 맡으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사실 그가 국악단의 지휘를 맡은 지는 3년이지만 안산시립국악단에서는 10년을 보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안산시립국악단만의 소리와 색깔을 잘 파악하고 있다.

임상규 상임지휘자는 국악의 변신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단언한다. 임 상임지휘자는 현대와 고전이 어우러진 창작을 선보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고정된 관념을 깨기 위해 홍대를 자주 찾기도 하고 타 공연장을 찾아 트렌드를 분석하며 공연의 흐름과 관객의 요구를 알아내기 위해 애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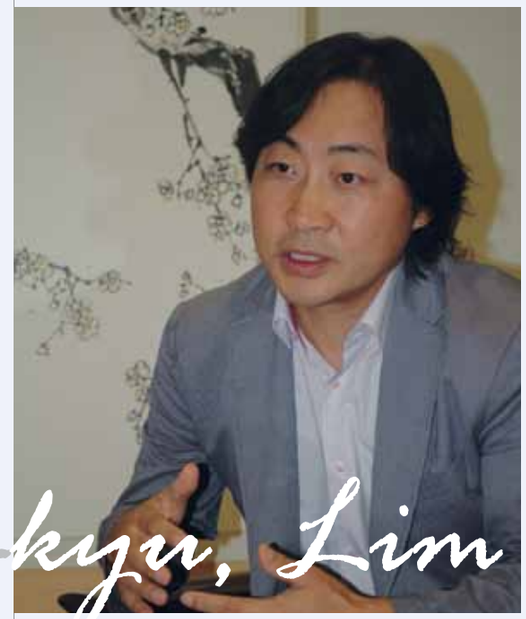
임 상임지휘자의 부단한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안산의 대표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안산 음악의 꽃을 피우다'는 안산의 문화예술 이미지를 높이는 정기연주회로 자리잡았다. 이 공연은 성호 이익 선생, 상록수 최용신 선생 등 안산의 주요 역사적 인물과 시화호 등 안산의 명소를 소개한 국악 연주회이다. 그리고 6년째 이어오고 있는 '다문화 세계음악 시리즈'는 안산에 거주하는 다문화층을 아우르며 다양한 관객들에게 각국의 음악을 소개하는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임상규 상임지휘자가 이끌고 있는 안산시립국악단은 16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국악단의 비전은 더 이상 과거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남기보다 현대와 소통하며 미래를 밝힐 국악의 미래를 도모해야 한

다는 것, 그것이 안산시립국악단의 비전이다.
"전통국악 매니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통국악만 고집하다보니 일부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국악이 남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악이 필요한 시대에 전통국악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만큼 국악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됐죠. 실제로 전통국악은 그 자리가 좁아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대중과의 소통이 없는 공연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국악의 미래를 위해 보다 다양성을 함양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악기 이외에 악기를 도입했고, 연주곡도 전통곡에 국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럽음악도 다루고 영화음악도 연주하다보니 연주의 폭도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임상규 상임지휘자의 국악을 향한 열정은 따분한 국악 공연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며 국악을 외면하던 관객들의 발걸음을 공연장으로 돌렸다.
단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는 임 상임지휘자는 모든 일을 사려 깊게 처리하고자 한다. 일을 하는 데 있어 단원들과 의논하는 것은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담당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준다. 그러나 창작의 틀을 깨뜨리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임 상임지휘자가 단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무대 완벽주의자로 불리는 그는 "연습이 부족해지면 완벽한 무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들에게 정해진 연습시간 외에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맞춰보도록 시킵니다. 단원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파트에서 완벽해지게 되면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며 무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안산시립국악단 단원들은 자연스럽게 도전정신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이전과 다른 음악무대를 만들어가는 희열을 알게 된 것이다.
"저희는 아직도 배고프고, 더 새로운 것을 찾아 연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단원들의 목소리 속에서 당찬 기운이 느껴진다.
물론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진 않다. 안산시립국악단은 시민들의 눈높이와 맞추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시장 골목이든 아파트 정문, 노인정에서 트로트와 같은 대중음악을 우리 국악기로 연주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어디든 찾아가 공연을 펼친다.
임상규 상임지휘자는 "단원들이 안산시 소속이다 보니 시민들에 대한 봉사정신이 자연히 우러나오는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시간을 할애하여 무료공연이 필요한 어떤 곳이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불러주시는 시민들이 있다면 어디든 재능기부 차원에서 방문할 생각입니다. 특히, 병원, 양로원 소외계층이 있는 곳에 자주 찾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라며 앞으로 계획을 말했다.
그래서일까? 임상규 상임지휘자는 단원들에게 색다른 주문을 한다. 잘 차려입고 전통국악을 공연하고 연주하기보다 마음으로 연주하라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그 길은 관객과 소통하며 몸으로 보여주는 것에 있다고 말이다.

글. **박공주**



Sang-kyu, Lim

윤한 로맨틱 팝피아니스트

다른 어떤 수식어보다 뮤지션

11월 23일 오후 5시, 팝피아니스트 윤한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찾는다.
최근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리얼 러브스토리를 보여주며 여심을 흔들고 있기도 한 그는 사실 피아노 치는 남자로 진짜 직업은 '뮤지션'이다.
달달한 카푸치노(2집, 'Cappuchino')처럼, 사랑에 퐁당 빠질(2집, 'When I fall in love')것 같은 목소리로, 그대를 그리는(KBS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피아노 테마) 그의 피아노 연주는 계절이 지나가는 요즘에 가장 어울리는 음악은 아닐까?

버클리 음대, 아이큐 146,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등 윤한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수식어 중 윤한은 '그저 윤한'으로 불리길 바란다. 음악을 포함해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예술가. 섬세한 마음으로 관객을 대하며 자신을 보여주려는 그런 사람이다. 그 어떤 수식어보다 윤한의 음악으로 남고 싶다고 말한다. 2013년, 마지막 두 달 동안 팝피아니스트 윤한은 전국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11월의 마지막 둘째 주 안산을 찾는 팝피아니스트 윤한을 만나보았다.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부모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10대 때는 공부는 잘했지만 하고 싶은 것은 딱히 없었어요.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옷을 신경 써서 입다보니 자연스레 모델 에이전시나 연예기획사에서 캐스팅 제의가 오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예술 분야, 혹은 예전부터 배워온 음악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고, 그런 저의 바람을 부모님께서도 알아차리시고 예술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신 조건은 음악을 할 거면 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대학원, 박사까지 따는 것이었죠. 그래서 버클리 음대에 가기로 결심하게 된 거에요.

버클리 음대에 짧은 시간에 합격하게 된 비결이 있었다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가르치면 뭔가 되겠다'는 그런 잠재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거든요. 그 잠재력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애매한 것이기에 합격 여부를 가늠하기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피아노를 정식으로 시작한 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니 늦게 시작한 셈이었어요. 그래서 늦은 만큼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쉽게 합격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모를 고민은 누구나 있듯 저도 그 당시 버클리 음대가 아니면 안됐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합격하게 됐어요. 당시 교수님들이 실력은 모자랐지만 제 안의 잠재력을 보셨나 봐요.

작곡뿐만 아니라 싱어, 피아니스트, 뮤지컬 배우, 음악방송 MC, 예능프로그램 출연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사실 저는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노래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뮤지컬에, 음악방송 MC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보니 주변 분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일

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도 같아요. 음대에서 피아노는 배웠지만 피아노를 전공한 것은 아니고 노래를 정식으로 배우지도 않았죠. 그래서 피아노도 노래도 뛰어나게 잘 하는 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단지 평균 이상일 뿐. 얼굴도 잘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의 외모이니 그게 강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두루두루 평균 이상이라는 거(웃음).

무대에서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으시나요?

크리스 보티는 제가 존경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재즈 연주자들은 보통 캐주얼한 스타일로 연주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그는 연주 시에는 딱딱해 보이지 않은 수트를 차려 입고 타이를 매고 나옵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아 저도 무대에 설 때, 클래식한 라인의 수트를 즐겨 입는 편입니다. 저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수트에 보타이를 착용하는 것, 그 정도일까요?

한 벌로 딱 떨어지는 느낌의 수트 재킷은 투 버튼이나 더블 버튼을 좋아합니다. 스타일은 클래식한 것이 좋고 원단이나 재질에 독특한 패턴이 가미되어 있는 것도 좋아해요. 컬러는 블랙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이 있나요?

꾸밈이 없는 성격이라 평상시에는 편안하게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로 농구 바지에 빈티지 카디건을 매치한 후 모자쓰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은 지갑이에요. 『연봉 200배의 법칙』라는 책을 읽은 후 지갑에 특별한 의미를 두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지갑의 가격으로 연봉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돈을 소중히 여기면 복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갑만큼은 좋은 것을 쓰는 편입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 중이신데 이번에는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 예정인가요?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미남이시네요〉, 〈그저 바라보다가〉, 〈아이리스〉, 〈커피프린스〉,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 〈로맨스가 필요해〉 등 제가 참여했던 드라마 OST와 영화음악 중에서 편곡해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1월 중순 쯤에 신곡을 발표할 예정인데 콘서트 중에 발표하게 되면 신곡도 프로그램에 포함하려 합니다.

늦가을에 어울릴만한 곡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크리스 보티의 〈Live in Boston〉라는 앨범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연 실황을 담은 앨범으로 2008년 9월 미국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열린 콘서트를 담은 앨범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요요마와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 캐서린 맥피, 팝페라 가수 조시 그로반 등이 초대된 슈퍼 콘서트였습니다. 재즈, 팝, 록 등 다양한 음악을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윤한 앨범 중에서 요즘에 어울릴 만한 음악이 있다면?

제 2집에 수록된 'From Paris to Amsterdam'이라는 곡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장르는 재즈 어쿠스틱이고 흔하지 않은 곡이라 생각합니다. 피아노와 노래로 구성되어 있고, 유학 시절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11월 23일에 열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의 공연에 대해 소개한다면?

콘서트 할 때 장소의 특성에 맞춰 공연 구성을 구성합니다. 소극장이면 밴드 구성보다는 관객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피아노 위주의 무대를 생각하고, 규모가 큰 무대라면 밴드 구성을 하는 편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관객과 소통하며 즐거운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취재 **이지현**
사진제공 **스톰프뮤직**

01

22 윤한 콘서트 in Ansan 〈Man on Piano〉
24 ASAC 몸짓페스티벌 예고편
26 ASAC 몸짓페스티벌 축하공연 〈태권무무 달하〉
28 음악놀이극 〈두부와 콩나물〉
30 아침음악살롱5 〈이다도시의 수다 콘서트〉
32 주미강&손열음 리사이틀 〈Fantasy for Two〉
34 모차르트 웹 게임 음악회
36 체코 보니푸에리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콘서트

Main theme

ASAC Stage

피아노 치는 남자

윤한이 전하는 스위트 멜로디

팝피아니스트 윤한의 공연이 올 가을 안산을 찾는다. 최근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 합류한 윤한은 부드러운 목소리와 위트있는 멘트 그리고 아이돌 같은 외모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미 세 번의 단독 콘서트에서 매진 사례를 기록한 윤한은 전곡 작사, 작곡, 보컬, 프로듀싱, 피아노, 뮤지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로 규정지을 수 없는 넘치는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펑키한 소울과 나른한 재즈 리듬 등 윤한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음악들은 다양하다. 모든 곡들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점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다. 심장 소리와 맞닿은 드럼의 비트, 베이스의 울림, 손 끝에서 흘러 나오는 피아노 소리가 더해질 때 비로소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듯 자연스러워지는 그의 음악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도 그는 "손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한다.

버클리 음대 출신의 엄친아!

현재 윤한의 이름에는 '피아노 한류의 주역'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또한 윤한의 다이내믹한 연주를 들은 관객은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뺏긴다고 말한다.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이루마, 한국인이 사랑하는 일본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이사오 사사키와 함께 게스트로 초대되어 다이내믹한 무대와 퍼포먼스로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바 있다. 버클리 음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보스턴과 뉴욕을 중심으로 음악감독과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주목받고 있는 윤한은 2010년 만남과 사랑, 이별을 그린 노래와 연주곡이 수록된 데뷔 앨범 'Untouched'를 통하여 언론과 평론가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화제의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OST에 참여한 그는 '그대를 그리다'를 연주했고,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돈의 화신〉 OST 등에 참여해 주옥 같은 곡을 선보였다.

새로운 구성, 새로운 시도, 오랜 친구들과 함께하는 스페셜 한 무대

이번 콘서트에서는 팝아티스트 윤한의 피아노 연주와 드럼, 베이스, 기타, 트럼펫이 어우러진 풍성한 사운드의 블루스, 재즈, 클래식, 팝, 가요 등의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그는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윤한' 자신이 곧 하나의 장르가 되는 음악으로 가기 위한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음악과 관련해 전방위로 활동하며 하나로 규정지을 수 없는 팝피아니스트 윤한에게 주목해보자.

공연기획부

공연안내

- 날짜 : 11월 23일(토) / 오후 5시
- 공연장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티켓 : R석 4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출연 : 윤한, 황정규, 유승철, 한상희, Chris B
- 문의 : 080-481-4000

몸짓으로 通한다!

춤, 마임, 움직임의 향연

11월 5일 몸짓페스티벌 I 〈이色몸짓〉을 시작으로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할 ASAC 몸짓페스티벌을 2014년 본편에 앞서 예고편으로 15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인다.

춤, 마임, 움직임 등 몸짓으로 소통하는 공연은 난해하고 지루하다는 선입관이 있다. 몸짓을 통해 암호를 풀어 나가는 몸짓 페스티벌은 몸짓 언어의 소통방식을 두루 살펴보고 다양한 몸짓과 움직임을 통해 관객들이 쉽고 흥미롭게 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몸짓의 확장과 몸짓을 통한 소통을 실험하는 이번 축제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작에 앞서 이번 11월 축제는 그 방향과 의미를 살피기 위해 핵심만 모아 '예고편'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ASAC 몸짓페스티벌 예고편은 〈이色몸짓〉, 〈몸짓콘서트〉, 〈축하공연〉으로 구성된다.

몸짓은 어렵다? 미미시스터즈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주지~"

페스티벌 시스터즈로 다감각팔방미인 '미미시스터즈'가 미남미녀밴드와 함께한다. 본편에 대한 종합적 예고편인 〈몸짓콘서트〉 섹션을 리드하며 '몸짓'에 대한 의미 찾기를 유쾌발랄한 콘서트와 퍼포먼스로 시도한다. 11월 9일 토요일 몸짓페스티벌 II 〈몸짓콘서트〉에서는 '동양의 감성, 유려한 강함을 지닌 뛰어난 한국의 무용가', '유럽무대를 사로잡은 아시아의 토네이도', '세계무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불리는 젊은 춤꾼인 '밝넝쿨-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씨어터'가 출연한다. 또한 파리국립오페라 발레단 최초의 동양인 남자 무용수 출신 발레리노 김용걸이 이끄는 '김용걸댄스씨어터' 역시 발레가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시하며 톡톡 튀는 발랄한 안무를 선보인다. 현대무용은 어렵다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허물며 무용팬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 안무가 김보람이 이끄는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그리고 (재)안산문화재단 상주단체이자 몸을 화두로 생소한 언어들과의 접촉을 시도, 실험하는 '극단 몸꼴'도 합세한다.

몸짓 언어에 대한 대중적 탐구, 지역의 움직임에 말을 걸다!

ASAC 몸짓페스티벌은 '몸짓'이라는 언어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경험, 그리고 다양한 접근이라는 본질적인 방향 외에도 '지역'의 몸짓과 움직임에도 말을 건낸다. 이번 예고편에서는 〈이色몸짓〉이라는 타이틀로 우리의 춤 역사가 이루어 낸 다양한 레퍼토리를 계승, 발전시키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김경희무용단'의 한국무용과 '백영태 발레류보브'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라는 발레 공연이 11월 5일 화요일 몸짓페스티벌 I 에서 선보인다. 또한 본 ASAC 몸짓페스티벌의 축하공연으로 몸짓페스티벌 III인 '경기도립무용단'의 태권도의 기상과 동양적인 춤 세계가 지닌 아름다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 스토리가 있는 넌버벌 퍼포먼스 〈태권무무 달하〉가 11월 15일에 공연된다.

앞으로 ASAC 몸짓페스티벌은 서울 이외의 지역 몸짓예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 공연단체들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14년 본편에 앞서 펼쳐지는 예고편 ASAC 몸짓페스티벌은 11월 5일, 9일, 15일에 펼쳐진다. 늦가을 완성도 높은 공연과 전문가들의 개성있는 무대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공연기획부

공연안내

공연명	ASAC 몸짓페스티벌 I 〈이色몸짓〉
날짜	11월 5일(화) / 오후 7시 30분
공연장	달맞이극장
티켓	전석 20,000원
출연	김경희무용단, 백영태 발레류보브

공연명	ASAC 몸짓페스티벌 II 〈몸짓콘서트〉
날짜	11월 9일(토) / 오후 4시
공연장	달맞이극장
티켓	R석 20,000원, S석 15,000원
출연	미미시스터즈와 미남미녀밴드, 김용걸댄스씨어터,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극단 몸꼴, 밝넝쿨-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씨어터

공연명	ASAC 몸짓페스티벌 III 〈태권무무 달하〉
날짜	11월 15일(금) / 오후 7시 30분
공연장	해돋이극장
티켓	R석 4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출연	경기도립무용단

예술(藝術)이 된 무술(武術)!

무舞, 무武를 탐하다

'무무(武舞)'는 문덕(文德)을 송축하는 뜻의 '문무(文舞)'와 대응되는 춤으로 무공(武功)을 찬미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궁중에서 아악을 연주할 때 악생들이 무(武)를 상징하는 옷을 차려입고 추는 춤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태권무무(跆拳武舞)란 곧 '태권 무공을 찬미하는 무용예술'을 의미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정신을 담은 민족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는 우리나라 역사의 발전과 그 맥락을 함께해 온 무예로, 민족의 철학적 정신세계가 내재되어 있는 전통문화유산이다.

〈태권무무 달하〉는 이러한 태권도 무예에 우리 전통무의 아름다운 춤사위를 조화시킴으로써, 태권도의 기원에서부터 태권도가 생활사에서 차지해온 의미, 나아가 그 이면에 숨겨진 전통의 숨결과 정신세계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획된 작품이다.

'태권도의 날'이 정식 발효된 2008년,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태권도 진흥을 위한 노력들의 하나로 경기도의 공식후원 아래 한국무용 창작극 〈태권무무 달하〉가 탄생됐다.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첫 무대를 선보여 4일간 총 7회 공연에 1만 여 명의 관객의 찬사와 감탄 속에 막을 내렸다. 이후 2009년 국립극장페스티벌, 2010년 상하이세계엑스포, 주일한국문화원 초청 등의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은 물론 평단으로부터도 큰 사랑을 받았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태권무무 달하〉는 우리나라 전통무용 대표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화려한 볼거리와 무용수들의 경이로운 움직임

〈태권무무 달하〉는 스토리가 있는 넌버벌 퍼포먼스이다. 태초 이전 무의 세계, 두 남녀의 탄생 및 천 · 지 · 수 · 화(天 · 地 · 水 · 火) 신들의 탄생,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이들을 갈라놓는 약육강식의 세계, 선과 악의 대결을 통해 새로운 기운과 생명이 탄생한다는 스토리가 아름다운 배경을 바탕으로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서정적으로 펼쳐진다.

신들의 탄생 이전 무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연출된 2분 30초의 경이로운 영상과 고구려 고분벽화 '사신도'에서 살아나온 듯한 신화 속 상징물(청룡, 백호, 주작, 현무, 황 · 수룡)의 웅자, 그리고 거친 약육강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동물 캐릭터(두꺼비, 공작, 나비, 구렁이, 독수리)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큰 볼거리다.

또한 선무도와 택견, 태권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통무술을 펼치는 전문 무예인들의 신기(神技)에 가까운 고난도 무술과 남녀무용수들의 춤사위는 태권도의 기상과 동양적인 춤 세계가 지닌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공연의 백미다.

〈태권무무 달하〉의 매력은 '우리 것'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라는 것이다. 동양의 천지창조와 고구려 고분벽화가 등장하는 등 신화를 이용해 태권도의 기원과 변천과정을 상징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통해 오랜 역사를 이어온 태권도의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한국적 신화의 모티브 속에서 고난이도의 태권도 퍼포먼스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태권무무 달하〉는 한 번쯤 볼만한 공연이 아닐까?

공연기획부

〈태권무무 달하〉 Episode

1부	2부
①無 世 界 ②창조의 신(남녀) ③땅의 신(황룡) 물의 신(청룡) 천상의 신A(현무) 벽화 ④불의 신(주작) ⑤승천무(수룡) ⑥생명의 소리(소녀) ⑦선무도 ⑧택견검(여) ⑨택견무(남녀)	①사랑의 2인무 ②악육강식의 세계 (개구리 탄생, 공작, 나비, 뱀, 독수리, 사냥꾼) ③선과 악의 대결 ④태권A ⑤태권B(고난도) ⑥태권무 ⑦미래의 꿈 ⑧The Moon(달무리) ⑨에필로그

공연안내

- 날짜 : 11월 15일(금) / 오후 7시 30분
- 공연장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관람연령 : 6세 이상
- 티켓 : R석 4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주최 : (재)안산문화재단
- 주관 : 경기도문화의전당
- 제작 : 경기도립무용단(총감독_조흥동 예술단장, 안무_김정학 상임안무)
- 문의 : 080-481-4000

해설이 있는 8인조 연주회

마음이 튼튼해지는 음악놀이극

〈두부와 콩나물〉은 한국전래동요와 놀이를 클래식 음악으로 재해석한 음악놀이극이다. 흥미로운 공연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예술 감수성을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어린이클래식 전문공연팀인 〈인터에듀아트〉의 8인조 앙상블(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롯, 클라리넷, 타악기)과 내레이터, 무용수가 출연하여 음악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재미있게 이끌어 나간다.

〈두부와 콩나물〉은 무대 위 연주자들의 제스처에 따라 악기소리가 재미나게 변형되는 인터렉티브한 요소를 도입하여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이 극의 특징으로, 공연을 보는 어린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한껏 높여 준다.

어린이 전문 클래식 공연팀 '인터에듀아트'

인터에듀아트(Inter-Edu-Art)는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클래식 공연 팀이다. 음악, 애니메이션, 무용 등 예술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들이 어린이 예술 공연 창작,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술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개발된 콘텐츠를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전달한다.

공연 포인트

① 애니메이션,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복합 퍼포먼스
② 라이브 실내악 연주와 함께 즐기며 배우는 악기의 세계
③ 내레이터(구름빵 엄마 역)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줄거리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온 윤이네 부모님은 비오는 날에도 두부와 콩나물을 팔러 나가야 합니다. 혼자 남게 된 윤이는 옆집 할머니 댁으로 놀러 갑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더 아프시다는 할머니. 할 수 없이 혼자 놀게 된 윤이는 마루에 앉아 비가 오는 문밖을 바라보는데, 대문 앞에 떨어진 콩나물과 두부조각이 윤이에게 함께 놀자고 손짓합니다. 깜짝 놀란 윤이에게 다가온 두부와 콩나물은 재미있는 노래와 춤으로 금세 사이좋은 친구가 됩니다. 어느새 어두워지자 엄마, 아빠가 부르는 소리에 윤이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두고 온 콩나물과 두부 친구들을 내내 생각하며 잠이 듭니다.
'다시 비가 오면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며칠 뒤 반가운 비가 내리자 윤이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시 엄마, 아빠가 나가신 문 앞으로 한발씩 다가가는데…….

공연기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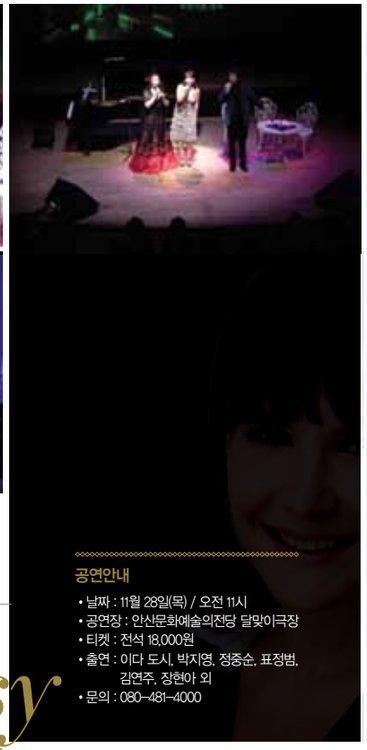
공연안내

- 날짜 : 11월 9일(토)~10(일) / 오전 11시, 오후 3시
- 공연장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 관람연령 : 5세 이상
- 소요시간 : 70분(인터미션 없음)
- 티켓 : 20,000원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안산문화재단
- 문의 : 080-481-4000(20인 이상 단체문의 031-481-4022)

이다 도시의 수다 콘서트

사랑에 울고 울어도 사랑하고파

이 세상에는 남성, 여성, 그리고 아줌마라는 세 가지의 성이 있다고 누가 말했던가!
아줌마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과 고민, 그리고 사랑을 재즈와 클래식, 샹송 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이다 도시가 유쾌한 수다로 풀어낸다.



공연안내

- 날짜 : 11월 28일(목) / 오전 11시
- 공연장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티켓 : 전석 18,000원
- 출연 : 이다 도시, 박지영, 정중순, 표정범, 김연주, 장현아 외
- 문의 : 080-481-4000

Ida Daussy Talk Concert

2013 아침음악살롱 5에서는 올해 마지막 무대로 '여자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국내에 귀화해 두 아이의 엄마로, 칼럼리스트로, 방송인으로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 방송인 이다 도시가 이번 무대를 함께한다.

영상과 음악, 댄스가 있는 힐링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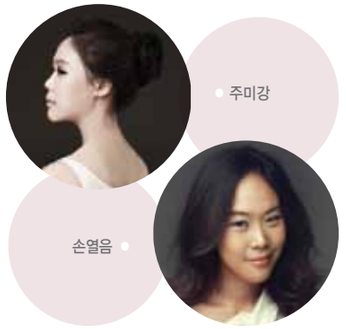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삶 속에서 사랑에 울고, 웃고, 아파했던 프랑스 대표가수 에디뜨 피아프.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녀의 삶도 음악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 우리들도 피아프 같은 사랑을 했었다. 아니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본 공연은 피아프의 생애와 사랑을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로 전개하지 않는다. 대신 이다 도시의 재치 있고 활기 있는 진행과 영상 그리고 재즈, 칸초네, 영화 OST를 노래, 댄스 그리고 악기의 연주로 다양하게 선보이며 피아프의 사랑이야기 속 주인공을 우리들로 만든다. 잊고 있었던 내 가슴의 열정을, 소홀한 현재의 사랑을,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닐 것 같은 사랑이 이웃집 프랑스 아줌마 이다 도시의 입담으로 재탄생될 것이다.
국내 최고의 출연진들과 거침없고 재미있는 입담으로 주부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꾸며지는 이번 콘서트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28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연기획부

음악은 삶을 따라 흐른다

환상의 듀오 주미강&손열음의 겨울 음악회

세계 클래식계에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과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오는 12월 1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자신들만의 음악세계를 선보인다. 지난해 5월 미국 카네기홀(스턴 오디토리움)에서 함께 데뷔하여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후, 두 연주자의 국내 공연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공연안내

- 날짜 : 12월 14일(토) / 오후 5시
- 공연장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티켓 : R석 60,000원, S석 40,000원, 청소년석 10,000원
- 출연 : 주미강, 손열음
- 문의 : 080-481-4000

2013년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두 여성 연주자의 만남… 음악계는 벌써 후끈

타고난 천재성과 끝없는 노력으로 불운의 사고를 극복하고 이 시대 새로운 음악 퀸의 존재를 알린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은 2010년 세계 3대 바이올린 콩쿠르인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와 일본 센다이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를 동시에 석권하는 저력을 보였다.

손열음은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연주상까지 휩쓸며 한국 국적으로 피아노 부문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일찍이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 없는 테크닉,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손열음은 뉴욕 필하모닉, 이스라엘 필하모닉, 체코 필하모닉, 바르샤바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NHK 심포니, 예루살렘 심포니,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포니,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다. 또한 2004년 제1회 금호음악인상을 수상하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꾸준한 후원을 받은 이래 2011년 제1회 SK케미칼 그리움 아티스트로도 선정되어 장학금과 연주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두 연주자는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하며 화제가 된 이후, 국내외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및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비롯하여, 다수의 실내악과 리사이틀 공연을 펼치며 그 기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클래식 유망주인 이들은 대중과 평단으로부터 폭넓은 사랑과 인정 또한 받고 있다.

다양한 색채의 프로그램을 눈 앞에서 느낄 수 있는 무대

〈Fantasy for Two〉라는 공연 타이틀에 걸맞게 이번 공연은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절묘한 앙상블이 돋보이는 슈베르트와 후바이의 두 환상곡과 모차르트, 프로코피예프의 소나타 등 다양한 색채의 곡을 통해 풍부하고 로맨틱한 선율을 유감없이 펼친다. 이번 무대는 중극장에서 진행되어 아티스트와 관객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더 가까이에서 연주자들의 유감없는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공연기획부

정말 이상한 음악회!

우주여행과 웹 게임, 모차르트의 조합

〈모차르트 웹 게임 음악회〉는 '타악기+오케스트라+웹 게임' 이 합쳐진 멀티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모차르트와 함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우주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다. 어린이들이 낯선 클래식 음악을 보다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게임과 클래식 명곡을 접목한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다.

제작진들이 2년간의 노력 끝에 품격이 다른 어린이 음악회로 재탄생시킨 〈모차르트 웹 게임 음악회〉가 올 12월에 다시 한 번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최초 유아 음악시장을 만들어 낸 '딱따구리 음악회'가 새롭게 시도하는 음악교육콘텐츠로 2006년 어머니 평가단이 꼽은 제5회 '올해의 좋은 공연' 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컴퓨터 마우스 하나에 어린이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요즘, 본 공연은 컴퓨터를 활용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음악교육을 위해 타악 앙상블과 웹 게임을 접목시키고, 형식적이고 획일화된 연주형태를 깨뜨려 재미와 교육에 한꺼번에 잡는다.

클래식을 보다 재미있게! 악당을 물리치는 모차르트를 따라 우주여행을 떠나는 국내 최초 웹 게임 음악회 〈모차르트 웹 게임 음악회〉를 주목해보자.

연주와 스토리 구성

1장 공연시작 : 살리에르가 사라졌어!
2장 우주선 탑승 : 모두 함께 친구를 구해내자 – 연주곡 '윌리엄 텔 서곡'
3장 미션1 : 높은음자리 별 – 연주곡 '터키 행진곡'
4장 미션2 : 낮은음자리 별 – 연주곡 '모차르트 심포니 40번'
5장 미션3 : 체험미션, 우주여행, 협연자 구출 – 연주곡 '악어떼', '멋쟁이 토마토'
6장 음악폭탄 장착 : 연주곡 '카르멘'
7장 검은별의 몰락 : 연주곡 '루슬란'과 '루드밀라'
8장 커튼콜 : 연주곡 '나팔수의 휴일'

줄거리

오늘은 어린이를 위한 음악경연대회가 열리는 날!
참가자인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멋진 연주를 펼친다. 하지만 매번 모차르트에게 간발의 차로 1등을 내주는 살리에리는 결국 질투로 가득차게 된다. 이때 어린이들의 질투를 좋아하고 꿈과 웃음을 먹고 사는 검은 별의 왕 루시퍼가 나타나 살리에리를 납치해 가고 연주자 모두를 고약한 마법에 빠뜨린다. 당황한 모차르트는 어린이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하는데…….
악당퇴치를 위해 우주선을 타고 떠나는 모차르트는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까?

공연기획부

공연안내

- 날짜 : 12월 18일(수) / 오전 10시 30분
- 공연장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관람연령 : 4세 이상 관람가능
- 소요시간 : 70분
- 티켓 : 전석 15,000원
- 주최 : 안산문화재단
- 문의 : 080-481-4000

체코에서 온 선물

착한 소년들이 선사하는 천상의 하모니

천상의 목소리, 유럽 최고의 소년합창단이라는 '보니푸에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보니푸에리는 순수한 목소리와 탄탄한 가창력, 재치 있는 안무 및 연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소년들의 티없이 맑은 목소리는 함께한 연인, 가족 관람객 모두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할 것이다.

라틴어로 '착한 소년들(Good boys)'이라는 뜻의 보니푸에리(Boni Pueri)는 1982년 창단된 체코의 대표적인 합창단으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합창단 중 꼽힌다. 합창단은 북미, 유럽, 아시아를 아울러 2,500회 이상의 콘서트 경력을 가지고 있다.

로마 교황청이 체코 정부와의 교류 20주년을 기념하여 체코의 문화를 대표하는 보니푸에리가 초청되었는데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을 마친 보니푸에리는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 갈채를 받았다.

현재까지 13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했고, 세계 굴지의 음악사인 'EMI', 'BMG', 'Supraphon', 'Arco Diva' 등과 20여 장의 컴필레이션 음반 작업을 함께하면서 전 세계에 보니푸에리의 이름을 알렸다.

이 밖에도 저명한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Jose Carreras), 그래미상 수상자인 바비 맥퍼린(Bobby McFerrin)과의 협연과 다수의 TV, 라디오 방송출연을 통해 보니푸에리는 세계적으로 그 입지를 굳혔다.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2006년 체코 교육부로부터 후원을 받아 350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사립음악학교 '보니푸에리'가 설립되었으며, 소년합창단 보니푸에리는 체코의 문화대사로 활동하며 세계 유수의 음악 축제들로부터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다.

정통 클래식, 유럽 민요, 크리스마스 캐롤 세 가지 테마 프로그램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의 정수, 체코 및 동유럽 국가의 민요, 크리스마스 캐롤과 뮤지컬 음악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이루어져있다. 각 테마에 따라 의상을 달리해 테마별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객에게 신선한 웃음을 주는 것이 보니푸에리 공연의 특징 중 하나이다.

클래식 테마에서는 신성함과 장엄함을 느끼게 하는 성가복, 동유럽 국가의 민요를 부를 때에는 체코의 전통의상을 입어 분위기를 한층 띄우며, 마지막 캐롤 및 뮤지컬 음악을 노래할 때에는 깔끔한 정장으로 소년들의 매력을 한껏 발산한다.

프로그램은 드보르작의 교향곡 〈신세계〉 중 '집으로 가는길', 헨델의 〈할렐루야〉, 브로드웨이 뮤지컬 메들리, 엔니오 모리코네의 〈넬라판타지아〉 등 한국의 관객들이 반가워할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순수하고 맑은 체코 소년들의 목소리로 듣는 김현철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은 이번 공연의 백미가 될 것이다.

공연기획부

공연안내

- 날짜 : 12월 24일(화) / 오후 7시 30분
- 공연장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티켓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출연 : 체코 보니푸에리 소년합창단
- 문의 : 080-481-4000

02

40 테마가 있는 미술 – 그림 속 신화이야기 ⑪
46 테마가 있는 공연 – 명작으로 읽는 세계 연극사 ⑤
52 테마가 있는 음악 – 벤자민 브리튼 탄생 100주년

Main Theme

ASAC Culture Trend

그림1.
루벤스, 〈헤라와 아르고스〉,
1611년경, 바를라프-리처드손미술관 소장

아르고스(Argos)는 백 개의 눈을 가진 괴물이다.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눈을 감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잠들지 않는다. 이러한 아르고스의 능력을 이용하여 헤라는 남편 제우스가 사랑한 이오를 감시하는 임무를 아르고스에게 맡긴다. 천하의 바람둥이 제우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자신의 전령 헤르메스를 불러 아르고스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그림 속 신화 이야기 ⑪

백 개의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면

루벤스의 〈헤라와 아르고스〉

공작의 날개에 맺힌 아르고스의 눈

어린 시절 동물원에서 가장 멋진 동물은 단연 화려한 날개를 뽐내는 공작새였다. 울타리를 움켜쥐고 공작새가 날개를 펴주기를 고대하며 얼마나 숨을 죽였던가. 암컷을 유혹하는 수컷 공작에게만 허락되었다는 화려한 부채 모양의 날개는 월조(越鳥)의 고고한 자태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눈부신 아름다움이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의 눈에는 공작의 아름다움이 왜 이리도 슬프게 보이는 것일까. 공작의 날개 끝에는 눈물이 서려있다. 아르고스라는 이름의 괴물이 남긴 백 개의 눈동자 속에 말이다.

바로크의 거장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는 1611년경 공작의 날개가 탄생하는 순간을 그리스 신화 속의 헤라와 아르고스의 이야기를 빌어 묘사하였다(그림1). 목이 잘린 채 차갑게 식어가는 아르고스의 주검과 그의 머리에서 백 개의 눈을 뽑아 공작새의 날개를 장식하는 헤라의 침착한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다. 역동적인 구도와 드라마틱한 묘사를 강조하는 바로크 미술의 특성에 매우 적합한 소재였을 것이다. 루벤스는 주저 없이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아르고스의 머리가 잘린 채 눈동자를 뽑히는 순간을 포착하였다. 아르고스의 머리에서 핀셋으로 눈동자를 뽑는 이는 헤라를 보좌하는 무지개의 여신 아이리스이다. 그녀의 머리 위로는 눈부신 무지개가 공작의 날개로 쏟아지고 있다. 아이리스의 손끝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아르고스의 눈을 찌르는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하다.

남편의 여성편력에 대한 헤라의 분노

헤라는 주신 제우스의 아내로 로마식 이름은 '주노'이다. 그녀는 결혼을 수호하는 여신이자 신들의 어머니이다. 티탄족인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이니 제우스의 누이이자 동시에 아내가 된다. 천계의 여왕으로 제우스에 버금가는 권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남매의 서열상 헤라가 연상이었으니 헌신적인 현모양처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

그림2.
코레지오, 〈이오〉, 1531년, 빈 미술사박물관 소장

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특히 신화 속에서 헤라는 질투의 화신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남편인 제우스의 여성편력에 그 원인이 있다. 제우스는 신과 인간을 가리지 않고 아름다운 여성만 보면 참지 못하고 애정행각을 벌였으니, 헤라의 분노는 매순간 극에 달할 지경이었다.

아르고스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오 역시 신탁에 따라 제우스와 사랑을 나눈다. 이오는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로, 아름다운 외모로 제우스의 사랑을 받았다. 이오와 사랑을 나눈 후 제우스가 아내의 질투로부터 이오를 보호하기 위해 구름을 일으켜 하늘을 어둡게 가리지만, 헤라는 이내 남편의 부정한 짓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찾아 나선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코레지오는 이오와 동침한 후 헤라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구름을 일으켜 이오를 가리고 있는 제우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그림2). 헤라가 제우스를 발견했을 때, 그의 옆에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닌 암소 한 마리였다. 헤라로부터 숨기고자 제우스가 재빨리 이오를 암소의 모습으로 둔갑시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알아차린 헤라는 암소를 빼앗아 백 개의 눈을 가진 아르고스에게 감시하도록 지시한다.

아르고스, 이오를 감시하다

그런데 이 아르고스라는 자는 이마에 눈이 백 개나 달린 괴물이었다. 잠을 잘 때도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눈을 감지 않았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이오를 감시할 수 있었다. 아르고스는 암소로 변한 이오에게 낮에만 풀을 뜯도록 하고 밤에는 보기 흉한 끈으로 목을 매어 나무에 묶어 두었다. 이오는 팔을 내밀어 제발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르고스에게 들리는 것은 소의 울음소리 뿐이었다.

제우스는 자신의 애인이 이 같은 고초를 겪는 것을 견딜 수 없

그림3.
프랑수아 부셰, 〈판과 시링크스〉, 1759년, 런던 내셔널갤러리 소장

었다. 그래서 자신의 전령인 헤르메스를 불러 아르고스를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양치기의 모습으로 변신한 헤르메스는 목신인 판이 만든 시링크스라는 피리를 불며 아르고스에게 접근하였다. 헤르메스는 날이 어두워지자 부드러운 곡조를 골라 불어 아르고스를 잠재워 보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헛일이었다. 아르고스의 대부분의 눈이 잠에 취해 감겨도 몇 개만은 여전히 뜬 채로 감시를 계속했기 때문이었다.

고민하던 헤르메스는 자신이 불고 있는 갈대 피리의 유래를 아르고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아르카디아의 님프였던 시링크스는 아프로디테를 숭배하여 다른 이를 사랑하지 않았다. 목신인 판이 시링크스를 사랑하여 끈질긴 구애를 보냈으나, 그녀는 판을 피해 달아나 물의 요정들의 도움으로 몸을 갈대로 바꾸어 판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낭만주의 화가인 부셰는 판이 요정 시링크스를 덮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였다(그림3). 고전주의 화풍을 보여준 푸생 역시 판과 시링크스의 사랑이야기를 다루었다(그림4). 사랑에 빠진 판의 머리 위에 사랑의 신 에로스가 등장하고, 판을 피해 달아나는 시링크스의 머리 뒤로 갈대가 보인다. 시링크스에게 거부당한 판은 애통해하며 시링크스가 변한 갈대 줄기를 몇 개 꺾어 각각 길이를 다르게 다듬어 붙여 피리를 만들어 불었는데, 그 소리가 매우 슬프고도 아름다웠다. 헤르메스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르고스의 눈은 모조리 잠에 취해 감겼고, 헤르메스는 때를 놓치지 않고 아르고스의 목을 잘랐다.

그림4.
니콜라 푸생, 〈판과 시링크스〉, 1637년,
드레스덴 국립미술관 소장

그림5.
루벤스, 〈헤르메스와 아르고스〉,
1635–38년, 드레스덴국립미술관 소장

이성의 빛을 잃은 백 개의 눈

잘린 아르고스의 목은 바위산 아래로 던져졌다. 백 개의 눈은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었다. 아르고스의 목을 거둔 헤라가 그의 눈을 뽑아 자기가 총애하는 공작의 깃털에 장식한 것이, 아르고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인지 그의 잘못에 대한 또 다른 징벌인지는 알 수 없다. 신화는 헤라가 아르고스의 충의를 기려 공작의 꼬리에 눈을 남겼다고 기술하지만,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마치 징벌과도 같은 육체적 고통이 감각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아르고스의 실제 이름은 아르고스 판옵테스(Argus Panoptes), 즉 '모든 것을 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백 개의 눈으로 세상 만물을 보는 감시자인 셈이다. 감시의 행위에서 강조되는 것은 합리적 이성과 신중함으로, 아르고스는 엄격하게 자신을 이성의 사고로 무장하는 존재이다. 합리적 이성은 중요하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지나치면 오류를 깨닫지 못하고 동시에 감성이 지니는 가치를 간과하게 만든다. 루벤스가 그린 또 다른 작품 〈헤르메스와 아르고스〉(그림5)는 피리를 불어 아르고스를 잠재우는 헤르메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감미로운 피리 소리와 시링크스의 사랑 이야기에 취한 아르고스는 흰 색 암소의 모습을 한 이오의 시선조차 느끼지 못한 채 깊이 잠들고 만다. 이는 아르고스의 합리적 이성이 헤르메스의 감성적 선율에 패배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고스가 겪는 몸의 격렬하고 참담한 수난은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상태에 이르는 '아타락시아(ataraxia)'를 향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루벤스가 살았던 17세기에 유행한 스토아 철학에 따른 것인데, 육체적 고통의 감각을 철저히 인식함으로써 정신적 빛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아르고스의 수난은 반복해서 간을 쪼이는 고통을 겪은 프로메테우스의 일화와 다름없이 인간사의 무의미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17세기 지식인들의 열망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르고스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즉 타나토스가 항상 생명의 힘인 에로스와 함께 하듯이 아르고스의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합리적 이성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아르고스의 눈은 새롭게 눈뜨게 된다. 즉, 이성에 사로잡힌 백 개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감춰진 세계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루벤스의 그림에서 공작의 깃털을 정성껏 다듬는 이는 천진난만한 모습의 아기들이다. 이처럼 눈뜸은 새로운 생명과 연결된다. 어린 시절 동물원에서 본 공작새가 화려하고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펼치기를 고대했던 마음은 그림 속의 아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새롭게 눈뜨기를 바라는 아르고스의 열망과도 맞닿아 있다.

글 **강은주**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대학교와 문화기관에서 미술사를 강의하고 있다.

〈과부들〉 공연(극단 백수광부)

명작으로 읽는 세계 연극사 ⑤ 칠레

진실을 기다리는 여인들 아리엘 도르프만의 〈과부들(Viudas)〉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잉카 문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칠레의 역사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굴곡과 아픔의 연속이었다. 에스파냐에 의한 원주민 정복, 긴 독립투쟁, 군사정권에 의한 독재와 압박 등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17년간 이어진 피노체트 독재정권의 무자비한 공포정치는 이 시기 수많은 칠레의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거나 해외로 망명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에 살해된 사람은 정부 공식통계만 3,000명이 넘으며, 아직 시신도 발견되지 않은 행방불명자도 1,000여 명에 이른다. 칠레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 중인 아리엘 도르프만의 작품은 이 시기의 쓰라린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진솔한 목소리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1942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아리엘 도르프만은 두 살 때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욕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전형적인 미국 소년이 되려고 애썼다. 열두 살에 부모를 따라 칠레로 돌아와 다시 한 번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산티아고에 정착하였으며 칠레 시민권을 획득하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3년 아리엘 도르프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조국 칠레에 머무를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난다. 1970년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사회주의 개혁가 살바도르 아옌데가 죽고, 피노체트의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칠레는 피노체트의 독재정권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이다. 열렬한 아옌데의 추종자였던 도르프만은 극적으로 칠레를 탈출하는 데 성공한 뒤 유럽과 미국 여러 곳을 떠돌다 1985년 미국으로 망명했다. 현재는 듀크 대학에 재직하며 창작과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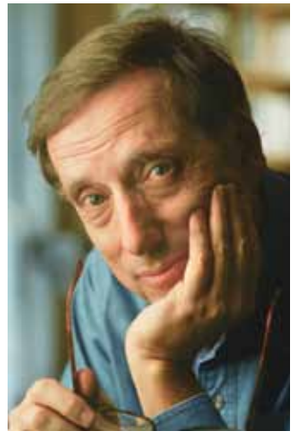
스스로는 안전한 곳으로 이주했지만, 그 대가로 도르프만은 칠레의 정치경제적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인생을 바쳤던 수많은 동지와 친구들이 사라지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처형당하는 모습을 내내 지켜봐야만 했다. 그래서일까, 도르프만의 작품들에는 언제나 조국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한 죄책감과 살아남은 자의 슬픔,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 등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희곡 〈과부들〉과 〈죽음과 소녀〉는 칠레 현대사의 정치적 아픔과 민중의 고통에 대한 그의 생생한 증언이자 진솔한 기록과도 같은 작품들이다. 대사 한 줄 한 줄 상징과 은유가 가득한 문학적인 힘으로나, 작품이 담고 있는 묵직한 윤리적 울림으로나 어느 하나 부족한 점이 없는 대작들이라 할 수 있다.

역사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과부들〉에는 구체적인 시,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지 않는다. 전쟁이 끝난 직후의 한 마을. 이 마을의 모든 남자들은 군부에 끌려간 뒤 실종되었고 그들을 기다리는 과부들만 남아 있다. 어느 날 강을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 한 구가 떠내려

아리엘 도르프만



려 오고, 고문의 흔적으로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그 시체를 두고 이들은 모두 자신의 남자(남편 혹은 자식)라고 주장한다. 남편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과부들의 몸부림은 과거 청산이라는 숙제가 상처받은 자들의 복수가 아니라, 더 이상의 고통을 거부하는 최소한의 인간적 요구임을 상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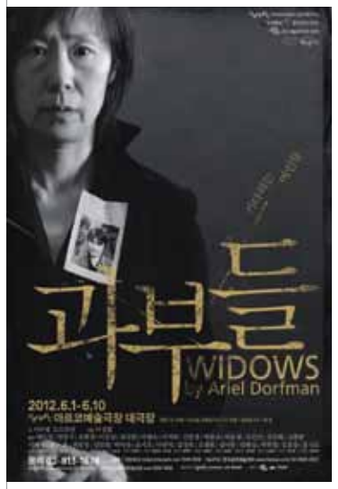
한편 이곳에 주둔한 군대는 이제 과거의 아픈 역사는 잊고 새로운 번영을 향해 가자고 과부들을 설득하고 이를 위해 회유와 협박 등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녀들은 이에 굴하지 않는다. 권총 앞에 떨고 있는 어린 손자를 두고도 자신의 의지를 꺾기보다는 손자에게 역사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죽음을 이길 용기를 전하는 할머니 소피아의 마지막 대사는 이 작품의 의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강가에 나와 하염없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소피아를 미친 노파 취급했던 과부들은 점차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고, 하나 둘 의자를 갖고 나와 소피아의 기다림에 동참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소피아가 죽은 뒤, 과부들은 모든 것에 우선해 먼저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자신들의 아버지, 남편, 아들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다 함께 강가에 모여 남자들을 기다린다.

이 작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강'이다. 강은 과부들이 빨래를 하고 밥을 짓는 삶의 공간이자 도도히 흐르는 역사(혹은 시간),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 결국 밝혀지고야 말 '진실'을 상징한다. 소피아를 비롯한 과부들이 강가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행위는 역사를 망각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지켜보는 것, 그럼으로써 언젠가 밝혀질 '진실'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의지를 상징한다. 극단 백수광부의 〈과부들〉의 무대에서는 이러한 강의 이미지를 또렷하게 부각시키면서 극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넓어지는 강을 통해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결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도르프만은 〈과부들〉에서 '군부 독재 하의 실종된 사람들'이란 민감한 현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제의적이고 신화적인 상상력을 보태 보편적이고 문학적인 울림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름도 시대도 알 수 없는 마을, 시체가 떠내려 오는 강, 강가에 앉아 남자들을 기다리는 서른여섯 명의 과부는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가지면서 이 작품을 1970년대 피노체트 군부 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시킨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과 망각을 강요하는 시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역사적 여정을 거쳐 온 우리에게도 많은 공감을 주는 작품이다.

도르프만의 〈과부들〉은 지난해 여름, 이성열 연출이 이끄는 극단 백수광부에 의해



〈과부들〉 포스터(극단 백수광부)

공연되어 큰 화제와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과부들〉은 작품의 묵직한 메시지가 주는 감동과 더불어 이지하, 박완규, 박윤정 등 현재 극단 백수광부를 이끄는 중추 배우들과 예수정, 오현경 등 그동안 백수광부의 대표작을 함께했던 명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극단 백수광부의 〈과부들〉은 그해 한국연극평론가협회가 뽑은 '올해의 연극 베스트 3'와 동아연극상 작품상에 선정되면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많은 관객들에게 '진실을 기다리는 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

아리엘 도르프만은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작가이다. 먼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디 아더 사이드〉는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상황에 착안해서 썼다고 작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작품이다. 인위적인 휴전선 설정으로 인해 생이별을 겪게 되는 노부부의 사연을 블랙코미디 풍으로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여러 경계선을 넘나들었던 그의 인생 역정과 우리의 분단 상황을 묘하게 겹쳐 그리고 있는 수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손진책 연출에 의해 무대화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7년에는 차범석의 대표작 〈산불〉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댄싱 섀도우〉의 각색을 직접 맡아 방한하기도 했다. 전쟁과 독재 등 아픔의 역사를 한국과 칠레

〈디 아더 사이드〉연출 손진책

모두 비슷하게 겪은 데다 〈디 아더 사이드〉, 〈죽음과 소녀〉 등을 통해 전쟁과 독재의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그로 인한 후유증이나 주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온 작가의 주제의식이 〈산불〉과도 상통하기에 도르프만 역시 이 작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작업에 임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도르프만의 손길을 거치며 〈산불〉은 우화적인 성격을 띤 새로운 작품으로 탈바꿈되었다. 독특한 지명과 인명, 그리고 태양군, 달군 등의 등장으로 한국색은 퇴색되고 보편적인 공감을 자아낸다. 또한 나무와 숲의 의미가 강화되었다. 그는 〈산불〉의 중요한 배경인 숲을 죽은 군사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이 살아있는 영혼의 안식처이자 정신적인 지주로 그려냈다. 때문에 숲이 불타는 것은 영혼과 인간성의 파괴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전쟁의 무자비함이 드러나게 한 것이다.

〈디 아더 사이드〉 (연출 손진책)

〈과부들〉의 마지막 장면(극단 백수광부)

죽음을 이기기 위한 글쓰기

피노체트 군사 독재의 압박과 망명 등으로 험난한 삶의 여정을 거쳤지만, 생명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리엘 도르프만은 늘 쉬지 않고 글을 써왔다. 어쩌면 그에게 '글을 쓰는 것'은 죽음과 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댄싱 섀도우〉 각색을 위해 내한했던 2006년 당시 도르프만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그것에 대항하기 위한 몸부림이죠. 슬픔과 공포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것은 괴로우면서도 놀라운 일입니다. 내게 글을 쓰는 것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이자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나는 항상 삶의 어두운 면에 대해 쓰지만 결국은 누군가를 믿고 싶다는 의지를 전달하고자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 **김주연**
고려대학교 노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러시아 연극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0년까지 월간 『객석』에서 연극 담당 기자로 활동하면서 『우리 시대의 극작가』(공저)를 출간했다. 현재 연극학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연극 칼럼니스트와 드라마터그로 활동하고 있다.

벤자민 브리튼 탄생 100주년

영어권 오페라의 최고 거장 벤자민 브리튼

벤자민 브리튼

브리튼 최고의 걸작으로 뽑히는 오페라 〈나사의 회전〉

올해는 오페라 역사의 양대 거인인 이탈리아의 베르디와 독일의 바그너 탄생 200주년이라는 점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영어권 오페라의 최고 거장인 벤자민 브리튼(1913~1976)의 탄생 100주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17세기의 헨리 퍼셀 이후 250년 만에 등장한 자랑스러운 영국 오페라 작곡가로서 브리튼을 소개한다. 물론 그의 활동영역이 오페라에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영국 음악계를 이끈 총아인 동시에 아웃사이더

브리튼의 생일은 1913년 11월 22일이다. 이날은 성 세칠리아의 축일이다. 모친의 영향을 받아 브리튼은 어릴 적부터 작곡을 시작했고 12세 때 저명한 작곡가 프랭크 브리지에게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다. 런던 왕립음악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합창 변주곡 모음인 〈한 아이가 태어나다〉(1933)를 작곡하여 재능을 알렸고, 이후 라디오, 연극, 영화음악 작곡가로 활동하다가 현악 합주를 위한 〈프랭크 브리지 주제에 의한 변주곡〉(1937)으로 국제적 명성을 획득하면서 영국 음악계의 기대주로 떠오른다. 1948년에는 해변마을 올드버러에 음악제를 창설하여 매년 여름마다 활발히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로 키워냈다.

그러나 브리튼은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아웃사이더의 길을 걸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1938년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브리튼은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해했는데, 특히 전쟁을 반대한다는 일관된 소신으로, 한편으론 절친한 시인 위스턴 휴오든의 영향으로 그의 뒤를 따라 미국으로 향했다. 이것은 영국인들에게 병역기피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한창 독일과 전쟁이 벌어진 시기였으니 얼마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인가. 결국 브리튼은 1942년 조국으로 복귀했고, 군에 복무할 수 없다는 사고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정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렇다고 일반적 국민정서로부터도 사면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것으로 왕따가 끝난 게 아니었다. 영국은 1967년까지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브리튼은 누구나 아는 동성애자였던 것이다. 특히 뛰어난 테너 피터 피어스(1910~1986)와는 1941년부터 죽을 때까지 무려 35년간 고락을 함께했고 예술적 동반자로서 완벽한 관계를 유지했다. 브리튼이 죽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사실상의 배우자인 피터 피어스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

브리튼은 결코 혁신적인 작곡가는 아니었다. 쇤베르크와 베르크의 12음 기법에 관심이 많았으나 부모와 은사들이 온건한 길을 걸을 것을 권유하자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방식을 택했다. 그가 독일이나 프랑스 작곡가였다면 이런 태도가 장애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 풍토가 보수적이었던 당시 영국에서는 적절한 처신이었다.

브리튼의 주요 오페라

브리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체류 시 첫 오페라 〈폴 버년〉(1941)을 썼지만 나중에 스스로 폐기해버렸고 장편으로는 첫 작품인 〈피터 그라임즈〉(1945)로 일약 영어권 오페라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다. 원작자인 조지 크랩이 가학적인 어부의 비정한 모습을 묘사한 것과 달리 브리튼은 완고하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캐릭터를 창조하여 주인공의 내적 심리 상태를 음악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신의 모습을 담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주로 서정적인 독백으로 처리되는 그라임즈는 괴짜이며 망상가이고, 그 정신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항상 흔들리며, 비극적인 사건의 악순환에 휘말려 결국 그 위험한 균형이 깨져버린다. 악의에 찬 군중들의 인간 사냥으로 묘사된 큰 규모의 합창은 야유조로 그라임즈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오케스트라는 극적인 긴장감을 계속 조성하는데, 브리튼은 여기에 시적 역할과 상기적 역할을 동시에 부여한다. 특히 6개의 전주곡과 간주곡 중에서 4곡은 별도로 재편성되어 〈4개의 바다 간주곡〉이라는 제목으로 독립적으로 연주되는 인기곡이기도 한다.

〈루크레티아의 능욕〉(1946)은 기원전 500년의 로마를 무대로 한 작품으로, 영국의 전설적인 콘트랄토 캐슬린 페리어가

연인이자 예술적 동반자였던 브리튼과 피터 피어스

초연에서 주역을 맡았다. 로마 시대를 다룬 역사극은 원래 바로크 오페라 세리아의 전형적인 소재였다. 그래서 브리튼은 음악도 옛 양식을 추구했다. 2막 구성인 것도, 피아노 반주에 의한 일종의 '레치타티보 세코'를 사용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다만 주역 가수들이 현란한 다카포 아리아를 연속적으로 쏟아내는 바로크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갈하고 단정한 스타일이다. 정절로 유명한 여주인공이 능욕을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완전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도 오페라 세리아의 공식과는 구별된다. 소편성의 악단이지만 풍부한 관현악법과 극의 상황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교묘한 처리방식은 늘 감탄을 자아낸다.

〈앨버트 헤링〉(1947)은 드물게 희가극이다.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단편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5월의 여왕'을 뽑는 행사에 적당한 후보자가 없어 남자인데도 처녀 대신 뽑히게 된 한 소년의 이야기다. 앨버트 헤링은 행사 주관자의 눈에는 완벽한 덕성을 가진 천사로 보이지만 역시 사춘기 소년에 불과하다. 자기가 사랑하는 소녀가 다른 소년과 사랑을 속삭이는 것을 발견하고는 실망하여 잔뜩 술을 퍼마신 채 사람들 앞에 엉망진창의 꼴로 나타난다. 일종의 존엄성에 대한 풍자인데, 등장인물의 성격묘사가 신랄하고, 민요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척 친근한 작품이 되었다.

〈모비 딕〉의 작가 허먼 멜빌 원작의 미완성 소설에 의한 〈빌리 버드〉(1951)는 바다를 다룬 점에서도 그렇고, 왕따라는 주제를 다룬 점에서도 〈피터 그라임즈〉의 후속편이라 할 만하다. 선임병에게 시달리던 청년 수병 빌리 버드의 분노가 폭발하여 실수로 선임병을 죽이는데, 평소 성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규율에 따라 교수형에 처해지고 만다는 얘기다. 배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답게 여성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오페라이며, 브리튼의 음악은 우아함이 넘치는 순간도 있으나, 이 우아함과 엄격함의 훌륭한 대조 효과에 의해 등장인물의 복잡한 감정을 조율하고 있다.

〈글로리아나〉(1953)는 현재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의 대관식 축하용으로 작곡된 것으로, 16세기의 철의 여인인 엘리자베스 1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영국의 국력 신장에 헌신한 위대한 군주였다. 그러나 역시 인간이었던지라 몇몇 신하가 여왕의 연인 자리를 거쳐 갔다. 그중 마지막이 35세나 연하인 로베르 드브루였다. 여왕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반역죄로 처단했는데, 이 얘기가 도니체티의 오페라 〈로베르토 데브뢰〉로 남았고, 벤자민 브리튼에 의해 다시금 다뤄진 것이다. 아무튼 여왕 대관식 축하용으로 이런 내용을 다루었다는 것이야말로 브리튼의 반골정신을 입증하는 좋은 예일 것이다.

영국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헨리 제임스의 소설을 오페라로 옮긴 〈나사의 회전〉(1954)은 유령에 시달리는 젊은 여자 가정교사와 두 아이의 음산한 이야기다. 원작의 환상적인 주제는 브리튼의 신비 취미, 그리고 신고전주의적 경향에 완전히 일치하는 이상적인 것이며, 필자로서도 브리튼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두 아이의 대사와 노래는 그 이전의 어떤 오페라보다도 중요하며, 브리튼은 이것이 음악적 중심이 되도록 현악오중주, 관악오중주, 타악기, 피아노, 하프, 첼레스타만으로 구성된 소편성 오케스트라를 사용하여 성악을 압도하지 않는다. 전체 8개의 장면은 리듬, 화음, 음색, 선율의 정교한 변주이며, 상승4도와 하강3도로 구성된, 즉 나사를 상징하는 주제가 대단원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놀라운 분위기의 곡을 최소한의 재료로 만들어 낸 것이야말로 브리튼의 대가다운 솜씨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극을 바탕으로 한 〈한여름 밤의 꿈〉(1960)은 브리튼의 오랜 연인 피터 피어스가 대본을 썼다. 몇몇 삭제 장면을 제외하면 거의 셰익스피어의 원문을 활용했고, 덕

〈루크레티아의 능욕〉

분에 셰익스피어의 요정극의 세계를 거의 완벽하게 오페라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사의 회전〉에서 피터 퀸트의 유령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던 첼레스타는 이번엔 마법의 세계의 기묘한 색채를 자아내는 데 사용되었다. 2막 전주곡이 12음 기법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3막은 19세기 낭만 오페라에 대한 풍자로 읽힌다는 것도 흥미롭다.

〈컬류 리버〉(1964)는 브리튼이 1956년 일본을 방문했다가 전통극 노(能)로 공연되는 〈스미다 강〉을 보고 감격하여, 이 내용을 중세 영국으로 무대를 옮겨놓고 창작한 우화 성격의 교회 오페라다. '노'가 갖고 있는 간소하면서도 당당한 미학을 서양음악의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인데, 일체의 장식이 없지만 힘찬 곡이 탄생했다. 무대는 영국이고, 내용은 기독교적인 기적극이지만 일본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이 작품의 성공에 힘 입어 후속작품이라 할 〈불타는 화덕〉(1966), 〈방탕한 아들〉(1968)이 나왔는데, 이들을 묶어 브리튼의 '교회 3부작'이라 부른다.

〈오웬 윈그레이브〉(1971)는 평생 TV를 싫어해서 한 번도 TV를 구입한 적이 없다는 브리튼이 TV용으로 만든 특이한 오페라다. 그렇다고 대충 만든 것도 아니어서 연주시간이 130분을 넘는다. 원작자는 〈나사의 회전〉과 같은 헨리 제임스다. 그것만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19세기를 배경으로 으스스한 내용이 담겨있다.

〈베네치아에서의 죽음〉(1973)은 토마스 만의 유명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이탈리아의 거장 영화감독 루키노 비스콘티가 말러 교향곡 제5번의 아다지에토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 동명의 영화보다 2년 늦게 나온 것인데, 브리튼은 자신의 구상이 방해받지 않도록 일부러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 대표적인 탐미주의 오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평생에 걸친 연인이자 예술적 동료인 피터 피어스를 위한 작품인 동시에 점차 쇠약해져간 브리튼이 타나토스, 즉 자신의 죽음에 대한 동경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주인공 아센바흐의 심리적 체험은 냉소적인 피아노 반주에 의한 모놀로그로, 아센바흐를 죽음으로 이끄는 운명의 사자들은 바리톤의 일인다역으로, 그가 반한 10대 소년 타지오와 그 일행은 묵역으로 주인공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타지오가 상징한 미의 관념, 미지의 세계는 이국적인 비브라폰과 댄스, 판토마임으로 묘사된다. 단순히 동성애에 관한 오페라라기보다는 절대적 아름다움에 관한 오페라라고 생각하고 싶다.

글 **유형종**
연세대학교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1995년부터 음악과 무용에 관한 칼럼을 썼고 현재는 무지크바움 대표로 있으면서 강의를 하고 글을 쓴다.

〈피터 그라임즈〉

〈빌리 버드〉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BM 산부인과와 함께하는

2013 아침음악살롱

이야기와 함께 떠나는 낭만음악여행

11/28

'이다도시'의 수다콘서트

홀수 달 마지막 주 **목요일 11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티켓 _ 전석 1만 8천원

주최 _ 안산문화재단

문의 _ 콜센터 080-481-4000 인터파크 1544-1555

Milky Brown

공연 후 밀키브라운에서 신선한 원두커피를 제공해 드립니다.

03

60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62 도시락 파티

64 문화 현장 – '안녕?!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김정선

68 시민극단 – 'PLAY 날마다 잔치'

Main Theme

ASAC 문화사업

재미와 감동의 이야기

그녀의 마음빼기 프로젝트!

1980년대 대중가요로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고 있는 송창식의 노래 '담배가게 아가씨'. 국민가요로 불리우고 있는 이 가요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이 무대에 올려진다.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는 그룹 '넥스트'의 멤버인 지현수가 음악감독을 맡은 동시에 배우로도 출연한다. 또한 2000년대 초반 그룹 '문차일드'로 활약했던 허정민이 배우로 전업한 후 뮤지컬 무대에 자리잡을 수 있게 한 작품이다.

공연은 연애 한 번 못해본 남자 '현우'와 동네 최고 인기녀 '유나'의 사랑이야기다. 2012년 초연 당시 소설가 이외수를 비롯한 많은 공연 관계자들에게 관심을 받았으며, VIP시사회 당시에는 수많은 스타들이 공연장을 찾아 연말 시상식을 방불케 하는 등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2030세대에게는 뮤지컬 특유의 열광적인 에너지를 선사하고 4050세대에게는 지난 시절 골목길의 향수를 자극하는 뮤지컬인 〈담배가게 아가씨〉. 라이센스 뮤지컬과 대형 뮤지컬이 한국 공연계를 장악하고 있는 지금, 작지만 강하고 감동있는 창작 뮤지컬의 매력에 빠져보자.

문화사업부

줄거리

아버지와 함께 이사 온 유나는 아현동 달동네에서 작은 담배 가판대를 운영한다. 사건 사고 없이 조용하던 동네는 유나의 외모에 시끄러워지고, 평생 연애 한번 못해본 현우는 유나의 외모에 반하게 된다. 현우뿐만 아니라 동네 모든 남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유나. 너도 나도 달려들어 유나에게 고백하지만 연신 차이기 일쑤다. 고백하는 남자들을 보며 현우도 용기내어 고백하려 하지만 늘 가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데….

도시 한가운데에서 즐기는 도시락 파티

열정 Rock 도시 Rock

>> 홍대씬의 폭발적 지지를 넘어, 대중적 입지를 확실히 굳힌
10cm

>> 대한민국 No.1 스카밴드
킹스턴 루디스카

뜨거운 여름의 햇살이 지나가고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밤. 움츠러드는 어깨를 풀어주기 위해 열정적인 음악을 들려줄 두 팀의 실력있는 밴드가 안산을 찾는다. 홍대 씬의 폭발적인 지지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에 서 있는 남성듀오 '10cm'와 9인조 스카밴드인 '킹스턴 루디스카'가 그 주인공이다.

'아메리카노'로 유명한 10cm는 2010 Mnet 아시안 뮤직어워드에서 '올해의 발견상'을 수상했으며 제8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팝 노래상을 수상하였고 KBS 2FM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이 선정한 '올해의 신인'에 뽑혔을 뿐만 아니라 정규 1집 앨범은 단기간에 3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해 관계자들과 대중들을 놀라게 했다. 2010년 첫 단독 콘서트에서는 1차 티켓을 10분 만에 매진시킨 후 이어진 2차 티켓 역시 5분 만에 매진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아메리카노',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등 재미있는 가사와 더불어 복잡하지 않고 편안하게 귓가를 맴도는 그들의 노래는 한번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묘한 매력을 지녔다. 섬세한 연주와 보컬을 바탕으로 10cm만의 솔직한 가사를 더해 감성적이고 신선한 공연을 펼친다.

2004년 결성 이후 어느덧 10년차 밴드로 들어서 킹스턴 루디스카는 국내 리스너들에게는 생소한 스카(ska) 장르의 리듬을 처음으로 퍼트린 9인조 밴드이다. 킹스턴 루디스카는 10년간 단 한번도 쉬지 않고 매년 계절마다 단독 공연을 해왔다. 지산밸리, 펜타포트, GMF 등 굵직한 페스티벌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들은 2011 KT&G 문화예술복합공간 '상상마당'에서 수여한 '최다 집객 단체상'을 수상할 정도로 공연 때마다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2013 도시락 파티〉는 11월 16일 오후 8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관람료는 전석 20,000원, 수험생은 10,000원이다.

문화사업부

음악으로 전하는 위안과 희망의 메세지

‘안녕?!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김정선

매주 월요일, 금요일 4시가 되면 학교수업을 끝낸 아이들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으로 하나 둘씩 모인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해돋이극장 지하, 국악사무실 앞에 있는 연습실. 종달새처럼 쫑알거리던 아이들은 연습실에 도착해 악기를 꺼내면서 조용해진다. 파트별 지도 선생님이 악보를 펼치자 의젓한 오케스트라 단원의 모습으로 돌아가 사뭇 진지한 모습이 된다. 단원들의 연습장면을 뿌듯하게 바라보는 김정선 음악감독의 표정이 밝다. “너무 좋아요. 자칫 흩어질 수 있었던 오케스트라단이었는데…. 우리를 품어 준 안산문화재단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안정적인 연습장과 공연 할 무대가 있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단원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연습에 임하고 있어요. 방송국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후 오케스트라가 해산될까봐 마음 졸였거든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목소리에 묻어 있다.

비올리스트 용재 오닐과 협연, 5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지원 시작

‘안녕?! 오케스트라’는 문화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전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음악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다문화 프로젝트로 전국에 30여 개가 있다. 그 중 다문화 대표도시 안산의 ‘안녕?! 오케스트라’는 작년, 모 방송사로부터 방송국 기획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은 오케스트라 단원 선발에서부터 연습, 공연까지 촬영해 총 4부작으로 방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송국 기획 프로젝트에는 세계적인 비올리스트이자 미국의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리처드 용재 오닐이 예술감독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정선 수석강사가 음악감독으로 함께했다.

김정선 음악감독은 작년 3월, 단원 24명을 뽑던 날을 잊지 못한다. 진흥원의 강사가 되기 전 광주광역시에서 작은 다문화 오케스트라단을 이끌던 그였지만,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무표정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한 아이는 오디션부터 3~4개월의 연습기간 내내 모자와 후드 티셔츠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세종문화회관에서 1차 공연이 있던 날, 단원들과 관계자들에게 그 아이의 ‘모자’는 초미

의 관심사였다.
"우리 모두는 '아~' 하는 탄성을 질렀어요. 무대 위의 그 아이가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가서 모자를 벗으라고 해야 하나?' 하며 갈등하고 있는데, 객석이 조용해지고 무대 조명이 켜지니 모자를 슬쩍 벗었어요! 저는 안심하며 피아노 반주를 했죠. 물론 그 이후에도 아이는 후드나 모자를 쓰고 다니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많이 웃어요."

상처받은 마음 음악으로 치유해요

용재 오닐과 협연한 세종문화회관 공연은 아이들에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자존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용재 오닐의 '섬집 아이' 독주에 이어진 아이들의 협연 공연은 그 자체가 감동이었다. 텔레비전 방영 후 시청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안산 원곡동에 산 적이 있다는 한 시청자는 거주 당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낸 것을 사과하면서, 잠시 비올라를 배웠던 경험을 살려 비올라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자원봉사가 힘들다면 악기 지원에 조금이라고 보탬이 되고 싶다며 메일 주소를 남겼다. 애니어그램으로 진로적성을 코치한다는 한 시청자는 아이들의 진로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오케스트라단은 2012년 12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단독 콘서트를 가졌다. 12월의 마지막 날 개최된 콘서트의 주제는 '고단한 삶에 지친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들려주는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였다. 출연진은 '안녕?! 오케스트라'와 용재 오닐, 특별 게스트 카이였다. 인터넷 사전예약 결과, 달맞이극장이 꽉 찰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무대에서 아이들은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생전 악기를 다뤄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1년 만에 연주하는 것도 자랑스러웠지만,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을 뿌리치고 연습실에 나온 아이들이 대견해 아이들의 부모도 관객들도 열띤 박수를 보냈다.
"관객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무대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선'을 진즉에 포기하고 음악교육과 음악이론을 공부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웃음). '세상에 이렇게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했지요."

안산에 둥지를 틀다

방송사의 프로젝트가 끝나자 오케스트라의 거처가 불투명해졌다. 그래도 아이들은 연습시간이면 거의 빠짐없이 나와 연습을 했다. 김정선 음악감독은 불안해하는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오케스트라를 지원해 줄 단체를 찾아 나섰다. 용재 오닐도 바쁜 일정을 쪼개 지원을 해줬다. 마침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안산문화재단으로 출범하면서 기회가 왔다. 오케스트라단이 자생하기까지 3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지원단체가 되면서 오케스트라단은 약간의 변화를 맞이했다. 음악으로 사회 통합을 하고 시민과의 연대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정이 아닌 일반 아이들도 단원으로 받아들인 것. "아이들이 서로 잘 적응할까 걱정을 했는데 기우였어요. 음악은 마음을 잇는 언어란 말이 실감 났습니다. 아이들은 음악으로, 악기로 뭉쳤어요. 관계가 좋으니 음악적 화음은 당연한 것이겠죠?"
2개월의 짧은 연습 기간을 거쳐 8월 말에는 〈향상 음악회〉를 가졌다. 이름 그대로 음악적 '향상'을 과시(?)하는 무대였다. 지난 10월에는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되어 폐막식에서 피날레 공연을 가졌다. 방송국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가 극장판 영화로 제작되어 상영되었기 때문이다.
"제 꿈은 '안녕?! 오케스트라단'의 꿈이기도 해요. 첫 번째 꿈은 오케스트라단이 지속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오케스트라단이 안산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마스코트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찾아가는 음악회〉 등으로 지역적 한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연주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안산 시민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세요."
오케스트라단은 다가오는 12월, 용재 오닐이 속한 최고의 앙상블인 '디토'와의 정기공연을, 내년 2월에는 다른 오케스트라와 교류 연주를 계획하고 있다.

글. **남양숙**

'안녕'이라는 인사는 소통의 시작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낯선 모국어를 가진 서로에게
'안녕!' 인사를 하고 처음 만나는 음악에게
'안녕!' 인사를 건네며
그렇게 대한민국에게 '안녕!'
인사를 건네기 시작한다.
–모 방송국 다큐 〈안녕?! 오케스트라〉 중에서–

우리 동네 모임,
우리 동네 축제
PLAY 날마다 잔치

'연극, 예술, 교육'을 매개로 지역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된 안산시민극단이 오는 11월 16일~17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1년간의 결실을 맺는다.

〈PLAY 날마다 잔치〉는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2013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 주관한다.

안산시민극단은 단순히 연극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상자들 간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단순히 취미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수준을 넘어 작게는 동네에서, 크게는 안산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의 힘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건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자생적인 '연극 동호회'로 발전하여 아마추어 극단으로서의 재능기부공연 등을 통해 문화공동체 형성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시민극단의 강사를 맡고 있는 김태현(극단 걸판) 연출은 "연극이라는 장르 안에서 식구처럼 함께 즐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안산에 또 하나의 극단이 탄생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안산시민극단의 첫 공연은 안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인 안산의 주민자치센터를 배경으로 하는 순수 창작극으로 오는 11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안산 문화공동체 형성의 첫 걸음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안산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안산의 이야기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문화사업부

05

72 공연 현장 – 음악극 〈에릭 사티〉의 연출가 박혜선

76 칼럼 – 음악치료 시리즈 ③

Main Theme

ASAC News

에릭 사티가 돌아왔다

음악극 〈에릭 사티〉의 연출가 박혜선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하 안산문예당)은 개관 때부터 거의 매해 한 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했다. 〈엘렉트라〉, 〈나비부인〉, 〈코뿔소〉 등 외부기관과의 공동제작 외에 뮤지컬 〈꼭두별초〉를 시작으로 가족 뮤지컬 〈반쪽이전〉, 김홍도 소재의 이미지 연극 〈선동〉, 오페라 〈신데렐라〉, 창작음악극 〈에릭 사티〉 등이다. 이 작품들은 안산문예당의 대표적인 콘텐츠가 되었다. 2011년 제작된 〈에릭 사티〉는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인 대학로에서 공연되어 호평을 받았고, 안산문예당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제작 공연장으로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공연기간이 짧아 아쉬움이 컸다. 이에 작품을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다시 공연(11월 22일~12월 1일)하기로 결정했다.
〈에릭 사티〉를 이끄는 박혜선 연출가를 만났다.

〈에릭 사티〉를 다시 만난 느낌이 궁금하다.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난 느낌이다(웃음). 연출가는 작품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반복이지만 헤어진 후 생각나는 작품이 있게 마련이다. 인간관계와 비슷하다. 한 번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기 힘들 듯 작품도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머리와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그 대상을 다시 만났다는 것은 무척 행복한 일이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에릭 사티〉 멤버들에게 전화를 하고, 새롭게 오디션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번 공연에는 당시 관객 반응을 분석해 작품에 반영하고 창작극의 신선한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많은 예술가 중에 왜 에릭 사티인가? 그리고 2011년 공연과 이번 작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에릭 사티는 흥미로운 음악가다. 사후 100년이 흘렀는데도 그의 음악은 시대의 트렌드인 광고, 드라마 등 우리 주위에서 생생하게 빛나고 소비되고 있다. 그런데 그는 낯설다. 이런 간극이 창작자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고, 시대를 앞서간 음악은 예술의 가치와 실험적인 장르를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 이번 작품은 기존 구성과 비슷하나, 에릭 사티의 음악정신과 스토리는 좀 더 명확해졌다. 군상과 군무가 담당했던 사티의 생애를 구체적인 인물의 등장으로 대체해 예술적 고민과 인간적 고민을 전달했다. 예술적으로 교류했던 장 콕토, 피카소 혹은 이들과 함께한 발레극 〈파라드〉를 통해 사티를 현실감 있는 인물로 표현했다. 그리고 음악을 시각화해 관객들이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객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음악극'이란 장르를 차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2011년 당시 〈에릭 사티〉는 새로운 장르를 제안하는 실험적인 무대였다. 〈에릭 사티〉 이후 공연계는 음악극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만들어지는 현재진행형의 장르가 되었다. 게다가 〈에릭 사티〉는 극 전체에 음악을 배치하고 내용과 상황에 따라 언어로, 노래로 전달하기 때문에 감동의 효과를 최대치로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음악극은 연극과 뮤지컬의 경계에서 생성되고 음악에 큰 위상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음악극은 현장감있게 라이브 연주를 지향하는데 이번 〈에릭 사티〉도 당연히 현장에서 라이브로 연주된다. 또한 음악극은 작가, 연출가, 작곡가,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네트워크의 협업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안산문예당의 기획 방향과도 일치하기에 적절한 선택이었다.

초연 이후 2년 만에 〈에릭 사티〉를 대학로에서 다시 공연하는 이유 무엇인가?

2011년 〈에릭 사티〉는 창작극으로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안산문예당의 준비기간도 철저했고 작품 제작을 위해 투입된 기간도 1년이 넘게 걸렸다. 완성도 높은 대본과 실력 있는 스태프가 만들어 내는 조화가 작품에 온전히 남아 있다. 회화, 조형, 이미지 그리고 인적 에너지가 넘치는 작품을 연극의 메카 대학로에 당당히 올려 평가받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산고 끝에 완성된 작품이 좀 더 오랫동안 관객을 만나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다. 다행히 한국공연예술센터의 기획공연으로 참가하게 되어 작품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에릭 사티〉의 재공연으로 안산문예당이 보내 준 믿음과 신뢰에 답할 수 있는 것 같아 다행이고, 더 나아가 〈에릭 사티〉가 안산문예당의 대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연출가 박혜선에게 〈에릭 사티〉의 재공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안산문예당과 인연이 끊어지지 않아 다행이라는 거?(웃음) 〈에릭 사티〉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인연을 맺으면서 얻은 것이 너무 많다. 지역 문화재단이 공연장 역할 외에 양질의 작품 제작을 위해 노력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나는 안산문예당의 팬이 되었다. 게다가 작년에는 문예당이 자체 공모한 시나리오 〈염전 이야기〉의 연출을 하게 되면서 실력 있는 지역 연극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모두 〈에릭 사티〉가 가져다 준 축복이다.

이번 〈에릭 사티〉의 재공연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문예당의 노하우가 안산 외에 대학로에서도 인정받고 통용된다는 것이다. 공연의 황금기인 11월에 극장을 잡고, 12회를 공연한다는 것은 작품성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그리고 연출가는 텍스트에 살을 붙이고 피를 돌게 해야 한다는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것! 살과 피가 부족하거나 과잉되지 않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에릭 사티와 같은, 시대가 규정한 틀을 초월한 예술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객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는데, 과거의 사티를 만나는 시간여행자이자 사티의 또 다른 분신인 '태한'은 고민의 결과이다. 관객은 태한을 통해 사티와, 사티를 통해 태한과의 여정을 떠난다. 그 여정에서 삶의 이야기를 듣고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배운다. 〈에릭 사티〉의 재공연을 위한 첫 미팅에서 기존의 배우들과 새로 합류한 태한 역의 김태한과 배해선을 보면서 사티가 관객들에게 보내는 '예술적 영감'과 '소통'의 메시지를 보았다. 공연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에는 배우들의 열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작품의 유일한 여배우로 참여하는 배해선과 방송인 김지영의 동생이자 실력 있는 뮤지컬 배우인 김태한의 응집력 있는 연기를 주의 깊게 보면 〈에릭 사티〉가 더 재미있을 것이다. 안산에서는 대학로가 멀지만 시민들이 많이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글. **남양숙**

연출가 박혜선은 예전에 어느 연극평론가는 나에게 '섬세한 연출가'라고 했다. 본격적으로 연출을 시작한 97년부터 매년 1~2편의 작품을 하고 있다. 〈주머니 속의 돌〉, 〈억울한 여자〉 등으로 명예를 얻기도 했다.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

토요일마다 만나는 '꿈다락'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자발적인 문화예술 향유능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사업기간	10월 19일 ~ 12월 21일
운영기간	기간 내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 (1기 6주 / 2기 4주)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요시간	3시간
참가대상	관내 초 · 중 · 고등학생 및 가족
참가인원	1기 200명 / 2기 200명
참가비	무료
프로그램	예술 특강 및 공연 감상, 후기 작성
신청접수	홈페이지 및 콜센터 080-481-400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재)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ansanart.com
트위터	@ASAC_ansan

● 일정

기수	주차	교육일시	프로그램	주제	인원
1기	1주	10월 19일 (19:30~22:30)	[공연관람]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200명
	2주	10월 26일 (9:00~12:00)	[특강] 무대의 판타지 '뮤지컬'		
	3주	11월 2일 (9:00~12:00)	[특강] '몸'으로 소통하자!	무용 – 몸짓 페스티벌	
	4주	11월 9일 (17:00~19:00)	〈공연관람〉 몸짓콘서트		
	5주	11월 16일 (9:00~12:00)	[특강] 무용		
	6주	11월 23일 (9:00~12:00)	참여후기, 자유토론		
2기	7주	11월 30일 (9:00~12:00)	[특강] 요즘 클래식? 내가 제일 잘 나가	주미강 & 손열음	200명
	8주	12월 7일 (9:00~12:00)			
	9주	12월 14일 (17:00~19:00)	[공연관람] 주미강 & 손열음 리사이틀 공연		
	10주	12월 21일 (9:00~12:00)	참여 후기 / 자유토론		

※본 교육일정은 변동될 수 있사오니 신청 후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치료 시리즈 ③ 소리에서 음악으로

음악과 함께 삶으로

음악치료에서 사용되는 치료방법을 살펴보고 그 초안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음악의 역할 및 적용방법들을 소개한다.

음악을 치료에 적용하는 방법은 각각의 문화권과 나라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음악치료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편적인 음악치료의 적용방법은 있다. 보호, 대상, 섞임, 교류, 이렇게 네 가지 역할로 음악은 내담자의 마음을 유순하게 풀어주는 열쇠가 된다.

음악 안에서 : 보호의 역할

지난 호에 음악이 인간의 내면 · 심리영역에 안정을 위한 보호막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나의 비유로서 어항의 물은 그 안의 물고기가 자유롭게 활동하며 생존의 영역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음악치료에서의 음악적 환경은 마치 어항의 물과 물고기처럼 내담자와 치료사와의 관계 적응, 낯선 공간의 적응 및 외부의 방해요인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음악은 오디오를 통한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치료사, 내담자가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을 생산해 냄으로써 주변의 분위기를 환기시켜 편안한 치료 환경을 만든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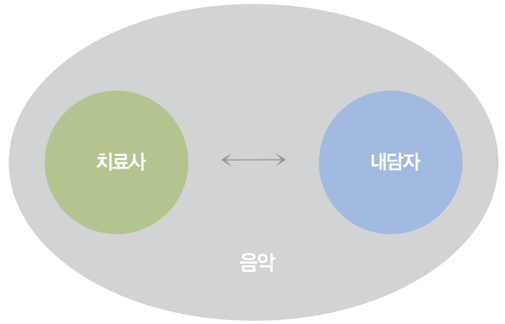


그림 1. 보호의 역할

적용 Tip

실생활에서 잠시 쉼을 위해 주변 환경과 잠시 단절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자.

먼저 활동하지 않을 때의 심장박동수와 일치하는 템포(♩=65~75)로 음의 릴리즈가 길게 형성되는 현악기 중심의 곡을 선택해 보자. 가능한 음의 도약이 심하지 않은 곡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선곡의 예 : 요한 세바스찬 바흐(J.S Bach)의 〈G선상의 아리아〉, 슈베르트(Schubert)의 〈들장미〉, 〈아베마리아〉, 〈자장가〉, 모차르트(Mozart)의 〈자장가〉, 슈만(Schmann)의 〈트로이메라이〉 등

음악을 대상으로 : 대상의 역할

음악의 기능 중 또 하나는 바로 현실적인 대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획일적이며 단면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의 흐름 안에서 다면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듯 음악을 듣는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시간의 흐름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음악도 하나의 대상이 되어 또 다른 대상을 만난다. 그때 그 역할과 기능을 갖고 만나는 것이다.

음악을 하나의 대상으로 여기는 상황은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자 이동 중에 음악을 듣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가운데 음악을 접하는 것은 마치 혼자 있는 것이 아닌 누군가 친근한 대상과 함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음악을 대상으로 대면하는 가운데 외로움이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것이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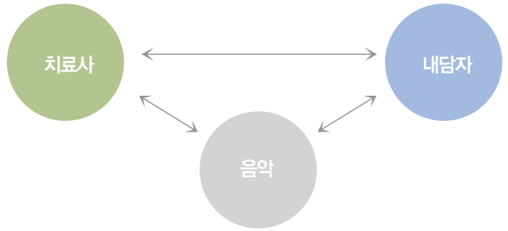


그림 2. 대상의 역할

적용 Tip

변화 없이 무료함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떠나 새로운 대상을 통해 활력을 얻어 보자.

앞서 '음악 안에서'에서 소개한 내면의 보호를 위한 음악이 듣는 사람의 심리상황과 동질성을 띠는 음악이었다면, 여기서는 조금은 이질성을 띠는 음악을 소개한다. 지금 나의 심박수보다 조금 빠르거나 반대로 조금 느린 곡을, 혹은 음의 릴리즈보다 어택이 강한 악기로 구성된 곡을 선택해 보자. 가능한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장르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음악과 함께 : 섞임의 역할

임상에서의 세 번째 적용 초안은 내담자가 악기 연주활동이나 감상을 통해 음악과 혼연일체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형태는 치료 · 교육적 관점으로 행동 수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스트레스성 장애로 인해 자가치료의 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는 음악을 보다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며 자신의 내면세계와 만나도록 인도한다. 이 적용방법은 더 나아가 무궁무진한 음악의 세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맡겨 여러 가지 미해결된 사건의 재인을 돕기도 한다. 또한 음악과 함께 섞여 있는 동안 긍정적인 퇴행이 일어나 과거나 미래로 일시적인 시간여행을 떠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일깨우기도 한다(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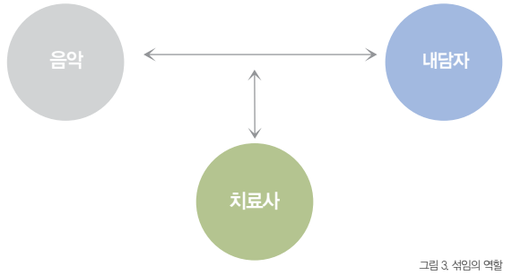


그림 3. 섞임의 역할

적용 Tip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소홀했던 자신과의 만남을 가져보자.
나아가 자신 본연의 모습을 확인하고 인정하며 회복하자.

음악과 함께 혼연일체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명상의 과정에도 수준별 단계가 있고 보다 깊은 참 만남과 통찰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쉽게 음악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악기를 배워보는 것이다. 악기를 배우는 과정에는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연주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은 음악과 함께 나를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음악을 통해서 : 교류의 역할

음악치료에서 내담자와 치료사가 음악을 매개로 하여 교류를 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묘사와 표현 등을 비롯해서 자유즉흥, 역할 표현, 음악외적 매체와 결합된 형태 등 아주 다양하게 유도된다.

이 적용방법은 치료사와 내담자가 서로 내면 교류를 위한 매개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료사는 내면의 감정 조절과 치료 · 기술적 에너지 사용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치료사는 내담자와의 정신내면적인 교류를 위하여 내 · 외적 심리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음악의 여러 가지 요소를 기술적으로 활용하여 내담자와 교류를 시도해 가는 것이다(그림4).

그림 4. 교류의 역할

적용 Tip

외부의 환경과 고립된 상황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계의 연결고리를 회복해 보자.

음악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서로에게 자기 가치를 느끼도록 반영해 주며 이상적인 모습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환기시키며, 관계의 질서를 잡고 재창조하는 원동력이 된다. 음악을 통해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집단음악 활동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합창단(어머니합창단, 아버지합창단, 종교단체의 성가대 등), 합주단(기타동아리, 하모니카합주단, 크로마하프합주단, 오카리나합주단, 섹소폰 동우회 등) 등 음악을 통해서 공동의 가치와 신념을 가진 동료들과의 집단적 음악교류는 심신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건강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음악은 이완과 평정을 돕는 보호막의 역할과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과 변화의 기회를 주는 대상자의 역할, 스스로를 통찰해 가는 섞임의 역할, 내면과 외부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교류의 역할을 갖고 있다.

"어떤 음악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그럴 때마다 음악을 음료수에 비유하며 설명을 한다.

일반적으로 클래식음악은 감각에 크게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물'과 같아서 편안하게 안정을 제공하며, 우리 내면의 심리적인 활력과 정화 등 정서적 함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때에 따라서 시원한 청량음료와 같은 상쾌한 음악이 필요할 때가 있다면 대중음악으로 기분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위기에 따라 와인이나 칵테일을 필요로 하듯 재즈나 블루스는 우리 마음을 적절히 가라앉힐 수도 있다.

때로는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나 강한 독주(毒酒)로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던지며 해소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같은 록 음악이나 헤비메탈이 도움될 것이다. 우리 고유의 향기가 담긴 전통차가 한국 본연의 정취를 느끼게 해 주는 것처럼, 전통음악으로 그 기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어린시절, 키를 쑥쑥 키운다던 우유를 생각하며 동요를 듣는다면, 유년의 행복했던 기억도 모락모락 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성수(聖水)와 같은 종교음악도 우리의 유기적인 삶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듯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종류의 음료수가 있듯 음악 또한 우리의 마음의 음료수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

청소년 시기에 많이 듣는 대중음악은 이런 비유에 비춰볼 때, 마치 콜라나 사이다 같은 자극적인 청량음료 같아서 정서함양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물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음료수지만, 그렇다고 항상 물과 같은 고전음악만 듣는다는 것은 유기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고로 삶에 있어서 각기 상황에 맞는 음료수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음악을 선곡하고 접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균형있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능동적으로 환경과 자기 자신을 살피는 통찰력을 갖고 선곡하는 그 과정이 바로 치료의 과정이자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다.

결국 어떤 특정 음악이 좋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신체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음악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심신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씁쓸하게 우리의 몸이 원하는 맛과 향기를 찾아 음식을 선택하듯, 우리의 음악적 취향도 시기마다 필요한 것을 취하며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유익한 재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글 **하준성**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음악치료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Dipl. MT)를 받았다. 독일공인음악치료사로 현재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음악치료임상교수와 'HJS음악치료발달연구소' 소장, '음악힐링아이' 대표를 맡고 있다.

Thanks to **Sponsorship**

아름다운 만남 '나누미'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현재
총 178,083,6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후원금 전액은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행복회원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쉐보레 안산남부영업소, 신한은행농구단, 안산1대학,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기업은행 안산점
김동호, (주)정든, (주)우리미래, 안산중앙신협, (주)코레코, 윤영중, BM산부인과, 드림웍스, 삼우도시시설관리(주)

나눔회원

박수연, 바리스커피, 헬로우오복성, 김용민, 김윤성, 이명식, 허연숙, 황정임, 하양숙, 김영균, 박수현, 버들공방, 이유석

보람회원

김원해, 송지현, 백종찬, 조남백, 강재근, 손경오(한국공연예술문화기획), 원스페이스, 이엔씨커뮤니티케이션스
맑음이벤트, 김봉식, 다원뮤지컬, 세방기획, 김종호, 대신전시(김기명), PMC프로덕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라이브아트, (주)케이티파워콤, 이양수,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딴따라', 양미경, 주부연극교실'유혹', 한진택
유인철, (주)신원엠에스, (주)가람이엠에스, 클린코리아, 덕영엔지니어링, 김일매, 차종영, SR En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송학천, 보화당, (주)퍼시스케이디, 김명산, 안산시건축사회, 유재학, (주)쇼플레이, 남양숙
아이다운, 주식회사 애드윙컴, 단청닷컴, 김광우, 자연미감, 신바람놀자학교, 한국공예체험문화협회, And Clay, 아티스토리 미술
영농조합법인 아이벅스캠프, 젬마트리, 천사부메랑, 사과와 당근 갤러리, 오형선, 정현욱, 권옥숙SRM

아름다운 만남 **나누미**

나누미(美)란 '나누면 누구나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경제적으로 공연관람이 힘든 소외 이웃들에게 공연을 선물하는 문화나눔 캠페인입니다.
지금, 문화나눔 회원이 되어 주세요. 나눌수록 기쁨은 두 배가 됩니다.